

朝鮮初期 節義派의 研究*

文暲鉉・韓明洙・徐元燮・金 燁・金光淳

《目 次》	
I. 序 言	V. 節義派의 人脈
II. 節義派의 淵源	VI. 杜門洞 72賢
III. 嶺南士林派의 成立	VII. 結 言
IV. 士林派의 開祖 吉再	

I. 序 言

本研究는「麗末節義派의 研究」라題한 研究의 續이 된다. 本人등이 계획한 麗末節義派란 찬란한, 東國 忠義思想의 淵源이 된, 麗末의 節義 忠臣의 研究는 革命의 進行과 成立이란, 半世紀에 걸친 革命派와 高麗王室 扶持 守護 세력간의 苛烈한 斗争의 産物이다. 따라서 그 고려의 忠節臣은 상당한 數가 麗末鮮初에 걸쳐 生存하고 있다. 그리고 朝鮮 開國이후에도 高麗의 復興運動이 일어나고 있으며 朝鮮 開國後 상당한 期間에 걸쳐 朝鮮에 出仕치 않고 高麗의 舊臣 遺臣을 自處하던 서 守節하다 生涯를 마친 節義臣이 不尠하다. 따라서 편의상 續篇의 연구로서 本稿를 企圖하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本稿에서는 朝鮮 初期 節義派의 淵源을 麗末의 三隱에 두고 朝鮮 節義派의 開祖를 冶隱吉再到 두고자한다. 儒學界의 二大派인 官學派에 對立되는 士林派의 開祖도 이 吉再到 그 源流를 두고자하며 조선 초기 節義精神의 精華인 節義諸臣을 고찰하므로써 本 연구의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이와 같은 麗末鮮初의 節義派의 忠節思想과 大義明分論은 이후 鮮朝王朝 五百年의 綱常을 維持케하는 原動力이 되었다. 이로 因하여 壬辰 丙子 兩大 倭胡亂에 당하여 勤王舉義한 義兵운동으로 國亂을 拯濟匡正한 精神的 支柱가 되었던 것이다.

本稿에서는 主로 高麗 遺臣들에 의한 조선 초기의 節義를 다루는데 主眼點을 두고자 한다. 이들 守節派의 人派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해진 守節派의 人物에 대하여 再評價를 시도했다는데 本稿의 의도의 일단이 있다 하겠다.

II. 節義派의 淵源

고려末 恭愍王代부터 定着하기 시작한 新儒學(性理學 一名 宋學, 朱子學, 程朱學,

* 이 논문집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道學 理學)은 三隱——牧隱 李穡 圃隱 鄭夢周 陶隱 李崇仁을 위시하여 朴尙衷 朴宜中 金九容 金震陽 鄭道傳 李種學 尹紹宗 金自粹 河崙 權近 李集등의 鴻儒碩學이 무리로 쏟아져 나왔다.¹⁾ 이들은 한결 같이 崇儒抑佛政策을 主張하여 倡明正學의 旗幟를 높이 올리고 萬丈의 光燄을 올렸다. 朝鮮 革命之際에 있어 이들 性理學者들은 二派로 分岐되어 兩大 山脈을 形成했다. 즉 一派는 朝鮮 革命派로서 부패하고 老衰한 高麗王朝를 전복시키고 新王朝을 創達하려는 理想에 불타는 一群의 儒學者群과 高麗王室을 받들어 中興하려는 一群의 儒學者群을 들 수 있다. 이들 二個群의 儒者는 共히 士大夫階級에 속했다. 前者는 鄭道傳, 尹紹宗, 朴宜中, 權近, 金自粹, 河崙 등이 이에 속하고 後者는 李穡·鄭夢周·李崇仁·金震陽·李種學등이 이에 속했다. 麗末에 性理學의 門戶를 연 자는 三隱이며 이 중에서도 牧隱의 門이 太盛하여 鄭夢周·李崇仁·鄭道傳·吉再·金九容·朴尙衷·朴宜中·河崙·尹紹宗·金震陽·金子粹등이 輩出되었고 鄭圃隱의 門下에서는 禹洪命·咸傳霖·李原·卞季良·河演등이 나오고 陶隱의 門下에서는 李存吾·李芳遠(太宗)·李升商·卞季良·吉再·金可행등이 나왔다. 이 중에 조선 節義派와 節義派의 鼻祖가 된 治隱 吉再는 牧隱·圃隱·陶隱 三隱에 모두 受學하고 또 權近에게서 受學했다.²⁾

三隱은 麗末에 있어서 性理學의 泰斗였으며 文章에 있어서도 當代의 巨擘이었다. 그리고 成均館을 再建하여 學官이 됨에 미쳐서는 名講으로 有名했다. 뿐만 아니라 高麗에 바친 丹忠에 있어서도 三隱은 한결같았다. 이 偉大한 三隱의 사상이 그대로 吉再에 계승되었던 것이다.

朝鮮의 革命은 그 時代가 東北 아시아에 있어서 一大 歷史的 變革이 일어나던 전환의 시대였다. 中原 大陸에서는 유라시아大陸을 支配하던 元帝國이 衰亡하고 漢族에 의한 天下大亂을 거쳐 明이라는 新興大帝國이 成立되어 交替되는 새로운 秩序가 수립되는 時期였다. 이와 같이 大陸에서 일어나는 變革이 震源으로 인한 영향으로 韓半島에서도 新舊秩序의 交替를 갖오게 되었다. 元나라의 1世紀에 걸친 支配下에서 고려는 그 멍에와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다. 그 結果는 元 支配下에서 방대한 莊園을 소유하고 累代 政權을 오로지하던 權門世族들의 親元派의 세력은 必然的으로 弱화되고 新進 士大夫에 의한 親明派의 세력이 강력히 대두하게 되었다. 이들 親明派는 性理學으로 武裝하여 老衰하고 矛盾이 極大化한 腐敗와 紊亂한 社會를 改革할 그들의 理想的 근거를 性理學에서 구했다. 따라서 이들 潑刺한 性理學者들의 안목에는 고려의 지도이념이던 佛敎의 병폐를 통찰하고 이를 혁파하려는 정열에 불타게 했다. 全國의 靈山名區에 星列한 寺院은 廣大한 莊園과 奴婢와 長生庫와 寶를 基盤으로 한 殖利經濟로 인하여 고려의 경제계를 지배했다. 이들 寺院이 소유한 田莊 奴婢 隸民의 規

1) 文暉鉉, 「麗末性理學派의 形成」, 『退溪學研究第 7輯』, 1981, 慶北大學校 退溪學 研究所.

2) 文暉鉉, 三隱攷, 『新儒學의 受容과 展開』란 題下의 國策學술 심포지움 1982년 10월.

模는 이미 고려의 經濟를 빈사 상태로 몰고 갈만큼 肥大한 것이었고 非生産의 僧侶의 數의 팽창은 실로 방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비대한 寺院經濟의 收奪體制下에서 민사의 고려 왕조를 구하고 人民을 해방하려면 佛敎의 폐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課業을 담당한 혁명 세력이 性理學을 수용하여 性理學的 禮敎(崇廉義 勵節義)와 政敎(明聖學 行王道)의 實踐³⁾을 포망하는 性理學者들이었다. 性理學의 發展이 遼西夏 金 元의 外來세력에 壓迫되어 未曾有의 치욕과 危機 속에서 일어난 大義明分 義理心性和 正統主義사상과 民族意識이 高揚되는 과정에서 新儒學인 宋學은 宇宙論人性理學과 尊王攘夷——大義名分の 經世學이 共存하는 道學으로서 形成된 新儒學이었다.⁴⁾ 朱子의 資治通鑑綱目은 이러한 歷史的正統論의 발로였다. 이와 같은 性理學의 도입과 傳播는 高麗의 性理學派로 하여금 天人合一의 王道政治을 고려에 具現시킬려고 했다.⁵⁾ 이러기 위하여는 崇儒抑佛政策을 들고 나왔으며 土地兼併의 進行으로 인한 大土地所有의 舊貴族政權을 타도하고 田制改革을 斷行하고 革命을 수행하여 새王朝를 세우려는 理想이 용솟음 쳤다.⁶⁾ 여기에 新儒學派 中에서 大義明分論은 兩分되어 天命을 받은 새 受命者를 받들어 天命을 改革하는 革命을 주장하는 者와 忠臣不事二君이라 忠孝에 生死를 걸어 正統王朝에 충성하는 고려 王室派가 생기게 되었다.

救國의 英雄 武將 李成桂를 응립하는 趙浚·南閔·鄭道傳에 대립하여 고려 王室을 받들며 儒敎的 中興政治를 할려는 李穡·李崇仁·鄭夢周·李種學등 一群의 性理學派가 있었다.⁷⁾ 이들은 性理學의 政敎的 經世思想으로 고려를 中興시킬려고 노력하고 그들이 고려를 爲하여 殉節하자 그들의 門徒들인 元天錫·吉再 등의 節義를 주장하는 性理學者들에 의하여 義理學派 즉 節義派가 형성되었다.

吉再는 新王朝에 不仕하고 鄉里에 隱居하여야 潛心 性理學을 工夫하고 弟子를 敎育하여 節義사상을 심었다. 그러므로서 李朝에 있어서 節義사상이 꽃피어 節義學派가 形成되었다.

Ⅲ. 嶺南 士林派의 成立

士林派란 朝鮮革命에 참여하여 開國에 공헌한, 朝鮮의 政治에 참여한, 一群의 理實參與세력——즉 勳舊派에 對하여 江湖 林下에서 性理學을 潛心 연구하고 弟子를 敎育하면서 高麗에 節義를 지킨 忠節의 전통을 이은 一群의 儒敎 세력을 의미한다.

3) 丁淳睦, 韓國性理學의 人間觀과 그 敎育學的 照明, 『道原 柳承國博士回甲論文集』, 東方學研究論攷, 1984.

4) 李乙浩, 『韓國改新儒敎史試論』, p. 43.

5) 丁淳睦, 前揭書.

6) 韓永慇, 『鄭道傳 思想의 研究』, 한국문화연구소, 참조.

7) 拙稿『麗末性理學派의 形成』『退溪學報』, 第七輯, 『韓國의 哲學 第9輯』,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士林派의 形成에는 性理學의 受容과 表裡의 관계에 있다. 士林에 관한 개념은 李秉
 休博士 李樹健博士에 의하여 精緻하게 연구된바있다.⁸⁾ 여기서 士林派란 勳舊派에 대
 립되는 의미로서 歷史的인 所任을 하던 儒學界의 한부류를 의미한다.

士林이란 오랜 蒙古의 亂과 麗末의 倭寇 紅巾賊의 침입등 장기간에 걸친 戰亂의 渦
 中에서 中央政府의 中央集權의 統制기능이 약화되고 外敵의 침입에 대한 民衆의 自衛
 的 抗戰의 과정에서 地方에서 민중의 새로운 지역적 통제세력으로 등장한 中小土地
 소유자 계층이 지방의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性理學的 교양을 습득하고 科擧에 의하여
 中央에 進出했다. 이들을 士大夫층이라 하고 이들중에서 조선 혁명에 참여한 一群의
 士大夫층과 고려 왕실을 匡救 中興 시킬려다 숙청되고 박해받은 一群의 士大夫층은
 각기 자기의 鄉里에 돌아가 地域社會에서 그의 經濟的기반을 토대로 守節하면서 性理
 學을 연구하고 地域社會의 子弟들을 교육함으로써 그 地域社會에서 새로운 지도 통제
 세력으로 기반을 굳히게되고 이들이 嶺南地方 각처에 割據하여 大義明分과 忠孝사상
 과 王道의經世論을 바탕으로 地方 教化에 힘쓰고 이들간에 互相 連繫로 一大 封建王
 朝에 있어서 새로운 통치 지도세력으로 등장하게되고 中央政府의 性理學的 學問的 소
 양이 결핍한 權門勳舊세력에 강력히 대항하는 신진세력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광범한
 地域的 民衆세력과 學問的 理論을 배경으로 그들은 王權과 결탁하게 되었다. 이들 士
 林派는 그들의 精神的 支柱가 性理學과 忠義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淵源의 宗師로 고
 려 王朝에 丹忠을 바쳐 殉節한 圃隱 鄭夢周를 그들 性理學統의 開祖로 받들고, 그의 淵
 源을 전승한 弟子로 高麗를 위하여 守節한 冶隱 吉再를 그들의 宗師로 받들고, 嶺南 一
 圓에 門徒세력을 扶植하고 中央에 進出하여 新王朝의 儒敎的 統治理念을 담당한 佔畢
 齋 金宗直과 그 門徒들에 의하여 鄭夢周·吉再·金叔滋·金宗直의 學統을 수립했다.⁹⁾
 이를 道學的 傳道 正統으로 고정시켰다. 이들 士大夫들은 一千年을 제승한 佛教 寺院
 의 民衆 收奪에 대하여 正面으로 對決하였다. 佛教란 全國을 망라하는 敎區를 형성하
 여 그 敎區內의 民衆의 정신적 물질적 세계를 지배했다. 佛教 寺院의 廣大한 莊園經濟
 力은 막강하여 民衆에 質란 殖利財團을 배경으로 高利貸金業等으로 민중을 收奪하고,
 그들의 막대한 奴婢세력도 민중의 위협이었다. 여기서 새로운 地域 지도 세력으로서의
 士大夫와 佛教는 必然的으로 충돌하게 되었고 排佛政策은 不可避한 것이었다. 민중은 士
 大夫층의 崇儒抑佛政策을 지지했다.¹⁰⁾ 高麗王朝의 타도와 혁명은 咸興平野의 경제력과
 함흥평야를 중심한 女眞族의 騎馬軍團을 포용하는 李成桂의 강력한 武將세력과 이와
 결탁한 性理學者 士大夫그룹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一群의 士大夫 性理

8) 李秉休:『朝鮮前期畿湖士林派의 成立과 發展』참조.

李樹健:『嶺南士林派의 形成』참조.

9) 朴世宗:『東儒師友錄』, 張志淵·『朝鮮儒敎淵源』·玄相允·『朝鮮儒學史』, 참조.

10) 文暉鉉:『麗末性理學派의 形成』,『韓國의 哲學』第9號,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1980,『退溪
 學研究』第7輯.

學者들은 改革政治와 崇儒抑佛策은 지지하되 고려왕실을 도와서 중흥시킬려는 忠義를 갖고 있었고 고려가 망하자 그들은 각기 鄕里에 내려가서 그들 鄕里를 教化했다. 이들이 士林派를 형성했던 것이다.¹¹⁾

영남 士林派의 宗師는 야은 길재였다. 治隱은 鄭夢周의 弟子로 그의 學統을 이었다는 系譜를 士林派는 만들었다. 그러나 이 東國 性理學의 淵源系譜는 그대로 믿기에는 그 妥當性이 完全하다고 할 수 없다. 高麗에 있어서 性理學의 導入과 土着化는 무어니 해도 海東理學之祖宗을 牧隱 李穡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牧隱은 그 父 稼亭 李穀의 代에 抬頭한 新興士大夫다. 李穀은 都評議使司의 胥吏로 起身하여 文科에 登第하여 都僉議贊成事 韓山君에 까지 오른이로 元支配下란 특수한 時代를 배경으로 士大夫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는 益齋 李齊賢의 學統을 계승했다. 그의 아들이 牧隱 李穡이다. 牧隱은 家庭에서 家學을 傳授받고 益齋丈에 受學하여 益齋의 學統을 계승했다. 그는 元나라에 들어가 元의 太學에서 正式으로 工夫하고 性理學을 배웠으며 元의 科擧에 壯元하여 벼슬 살다 귀국하여 공민왕 16年 國學을 중수하여 成均館 大司成이 되어 文敎를 振興하고 그의 휘하에 鄭夢周·李崇仁·金九容·朴尚夷·朴宜中等 그의 門人을 學官으로 임명하여 文風을 일으키니 이에 蔚然히 文風이 大振하야 性理學이 고려에 퍼지게 되었다. 이 牧隱의 門徒중에 圃隱 鄭夢周·陶隱 李崇仁·三峰 鄭道傳이 나와서 門戶를 크게 열어 弟子를 교육하고 國學에서 重任을 맡아 性理學을 강의함에 크게 性理學風이 떨치게 되었다. 牧隱의 門下에서 鄭夢周(永川) 李崇仁(星州) 鄭道傳(奉化) 吉再(善山) 金子粹(安東) 金震陽(慶州) 卞季良(密陽) 河崙(晉州) 權近(忠州)이 나왔다. 圃隱의 門下에서 李敢(陝川 永川) 鄭道復(榮州) 등이 나왔고 李崇仁의 門下에서 李芳遠(開京) 金可行(善山) 吉再(善山) 卞季良(密陽) 등이 나왔다.¹²⁾

東國 理學의 濫觴은 實로 牧隱에 연유한다고 하겠다. 性理學이 風化之源인 國學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文運之總帥 牧隱丈의 지휘하에 一代 名儒가 名講義를 行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文風이 大振하고 性理學이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고려사에서 牧隱의 이 공로를 評하여,

先是館生不過數十 穡更定學式 每日坐明倫堂 分經授業 講畢 相與論難忘倦 於是學者益集 相與觀感 程朱性理之學 始興.¹³⁾

이라고 文運의 興起와 性理學의 始興을 牧隱의 偉功이라고 찬양했다. 따라서 東國理學之祖는 마땅히 牧隱이어야 한다. 牧隱의 首弟子에 鄭圃隱은 麗末에 崛起한 諸儒中에서 斷然 巨擘이었다. 文運의 總帥요 國學之長인 牧隱은 자주 말하기를 夢周의 論理는

11) 李樹健:『嶺南 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李秉休:『朝鮮前期 畿湖 士林派의 成立과 發展』,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1. 참조.

12) 拙稿 前掲書.

13) 『高麗史』卷第 115, 列傳卷第 28, 李穡傳.

橫說堅說하여도 理致에 합당치 않음이 없다고 하고 그를 東方 理學之祖라고 추거했다. 그리고 圃隱과 比肩되는 巨儒에 陶隱 李崇仁이 있다. 그는 成均館 學官들의 名講中の 名講이었다. 牧隱이 鄭夢周를 當代 第一의 名儒로 추거했는데¹⁴⁾ 대하여 三峰 鄭道傳은 李崇仁을 第一로 추거했다.¹⁵⁾ 三峰 鄭道傳은 成均館大司成이란 國學의 長으로 있으면서 排佛崇儒派의 宗師였다. 그가 國學에서 性理學의 宣揚 보급과 불교를 배척하는 운동의 猛將으로 그의 門徒들이 이후 抑佛崇儒운동을 계승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三峰 陶隱 圃隱은 莫逆한 親友를 맺고, 손잡고 文教 진흥에 공헌했다. 이들의 道學을 계승한 治隱 吉再는 牧隱의 門人이었고 牧隱의 弟子인 權近의 門人이었다. 그리고 陶隱 李崇仁의 門人이었다. 吉再는 어려서 朴賁에게 배웠다. 그의 門人인 朴瑞生撰 治隱의 行狀에 의하면 그는 權近 朴賁의 喪에는 心喪三年 하여 弟子의 道를 다했다. 그리고 禍王의 喪에 方喪三年을 살았으나 鄭夢周의 사망에는 하등의 舉喪도 하지 않았다.¹⁶⁾ 鄭夢周의 學統을 이은 弟子란 계보는 아마도 吉再 자신은 알지도 못했으나 後世 金叔滋 金宗直 父子에 의하여 만들어졌던 것이다.¹⁷⁾ 吉再가 金烏山 下에서 子弟를 教授함에 門徒가 雲集했다. 그의 學統을 이은 門人인 金叔滋도 12.3세에 이 때 와서 공부했다. 金叔滋는 進士 金瑄의 子로 字는 子培 號는 江湖山人이다. 12.3세에 吉再의 門下에서 受學하고 15.6세에는 鄉校에서 공부하여 1414년 태종 14년에 司馬試에 合格하고 成均館에 入學하여 여기서 공부하고는 1419년 세종 1년에 文科에 급제했다. 官이 世子右正字 善山教授 開寧縣監 司宰監副正 成均館司藝를 역임했다. 1455년 世祖가 篡奪 즉위하자 벼슬을 버리고 密陽에 은거하여 一心 性理學을 潛心 연구하고 後學을 교육했다.¹⁸⁾ 그의 學統을 계승한 이는 그의 아들 金宗直이다. 金宗直은 字는 季昱 季鹽 號는 佔畢齋 密陽서 탄생했다. 弱冠에 詩文으로 이름을 날렸다. 端宗元년에 進士가 되고 世祖 5년에 文科에 及第하여 賜暇讀書했다. 校理 監察 經筵官의 清職을 역임 養母를 위하여 咸陽郡守로 부임했고 善山府使로 到任해서 文風을 振興시켰으며 많은 門生을 教育하여 地方을 教化시켰다. 그는 成宗의 優渥한 寵遇를 받아 都承旨 吏曹參判 同知 經筵事 漢城府尹 刑曹判書 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晩年에는 벼슬을 버리고 鄉里에

14) 『高麗史』卷 117, 列傳卷第 30, 鄭夢周傳에 李穡亟稱之曰夢周論理橫說堅說, 無非當理, 推爲東方理學之祖.

15) 鄭道傳:『陶隱集』序・『三峯集』卷之 3, 『東文選』88卷에 今牧隱李先生蚤承家庭之訓 北學中原得師友淵源之正 窮性命道德之說 東還延引諸生 其見而興起者 烏川鄭公達可 京山李公治安 晉陽河公大臨 潘陽朴公諫夫 永嘉金公敬之 密陽朴公子虛 永嘉權公可遠 茂松尹公紹宗 雖以予之不肖 獲聞於數君之列 予安氏精深明快度越諸子 其聞先生之說 默識心通 不煩再請 知其所得 文超出人 意表 博極群書 一覽輒記

16) 朴瑞生撰『治隱行狀』『治隱先生言行拾遺』卷之一.

17) 李樹健:『嶺南士林派의 形成』嶺南大民族文化研究所, p. 245에서, 李博士는 吉再의 학문적인 授受에는 家學을 비롯하여 朴賁 李穡 權近및 鄭夢周가 거론되었는데 그중에는 鄭夢周와의 관계가 가장 박약했다고 본다. 그러나 後代의 계보에는 鄭夢周→吉再로 되어 있으니 이는 당시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18) 金宗直:『彝尊錄』, 『海東名臣傳』

은퇴하여 後學을 教育했다.¹⁹⁾ 그의 門徒 太盛하여 鄭汝昌·金宏弼·曹偉·南孝溫·金駟孫·俞好仁·權五福·姜希孟·表沿洙·柳順汀·安遇·李胄·洪裕孫·許磐·申用溉·蔡壽·金詮²⁰⁾ 등이니 이는 그의 門人중에 一部를 뽑은 것이다. 金宗直에 의하여 그의 門徒들에 의하여 嶺南學派가 형성되었다. 또 이때에 鄭夢周를 東方理學之祖로 하는 儒家淵源이 이루어졌다. 즉 고려 遺臣의 節義派에 世祖 篡位후 端宗朝 守節諸臣들이 합쳐져 嶺南 一帶에 林下에서 義理와 忠孝를 강조하고 性理學을 연구하는 새 儒學風이 일어나게 되었다.

Ⅶ. 士林派의 開祖 吉再

그는 三隱先生에 고루 受學하여 조선 士林派 節義派의 開祖가 되었고 조선 性理學의 淵源이었다. 海東理學之祖라 稱하는 鄭圃隱夢周의 學統을 계승하여 江湖 金叔滋에 傳之하고 江湖는 其子 宗直에 전하고 估傳齋는 寒暄堂 金宏弼, 一蠹 鄭汝昌에 傳하고 金宏弼는 靜庵 趙光祖, 慕齋 金安國, 灘叟 李延慶에 傳하여 以後 韓國 儒學의 淵源 道統을 잇게 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吉再의 存在는 朝鮮 初期에 있어서 그가 占하는 位置와 比重은 莫重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吉再의 生涯와 그의 節義를 두게 있게 다루고자 한다.

그의 字는 再父요 號는 治隱 金烏山人이요 本貫은 海平이다. 그는 1353年 공민왕 2年 癸巳年에 慶尚道 善山郡 鳳溪里에서 出生했다. 그의 家門은 善山府屬縣 海平縣의 土姓으로 海平縣의 吏族이었으며 그의 曾祖 吉時遇代에 와서 進士가 됨으로써 土族으로 成長하였다.²¹⁾ 그의 曾祖 吉時遇는 成均生員이요 祖父 吉甫는 散員同正이었고 父 吉元進은 中正大夫 知錦州事였다. 母는 兎山 金氏夫人이었으니 外祖는 兎山의 土族으로 版圖判書에 追封된 金希迪이었다. 父 吉元進은 妻에 金氏夫人 外에 檢校軍器監 盧英의 女를 娶하여 두 아내를 거느렸다. 吉再는 아버지가 서울 松都에서 벼슬 살이 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본가에서 생활하면서 자랐으나 8세에 공민왕 9年에 그의 아버지가 實城判官으로 전임 하자 그의 어머니도 따라가서 吉再는 홀로 外家에 남아 애절한 의로움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다. 그리하여 外祖 金希迪과 外祖母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다. 11살 때에 冷山 桃李寺에 가서 처음으로 글을 배웠다. 16살 될 때는 詩를 지어 그의 學者로 好讀書하는 生活을 읊어 장차 學者로 大成할 길을 잡았다. 그 詩를 소개 하면

臨溪茅屋獨閑居 月白風清興有餘
外客不來山鳥語 移床竹塢臥春書

19) 『估畢齋集』·『海東名臣錄』·『成宗實錄』 참조.

20) 朴世采: 『東儒師友錄』

21) 李樹健: 前揭書, p. 107.

와 같으니 그의 조용한 선비적인 생활을 안전에 방불케 한다. 이 때 그의 아버지가 松都에 벼슬 살아 檢校軍器監 盧英의 딸을娶하여 吉再의 生母와는 소원해지자 가정 不和가 생겼다. 그러자 그는 모친을 위로하고 女子로서 忍從의 길을 간곡히 설득하여 원 망함을 그치게 했다한다. 1370년 공민왕 19년 18세에 商山 고을로 司祿 朴賁를 찾아가서 論語·孟子를 배우고 性理學을 배웠다. 또 서울 開京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지극한 孝道를 했으며 繼母 盧氏도 지성으로 섬겨 계모를 감복시켜 노씨부인도 드디어 친 자식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吉再는 서울서 一世의 名儒인 牧隱 李穡 圃隱 鄭夢周 陽村 權近의 門下에서 性理學을 배웠다. 甲寅年 1374년 공민왕 23년에 國子監(成均館)에 入學하여 生員試에 합격했다. 때 나이 22세였다. 그는 成均館에서 陶隱 李崇仁로부터 性理學을 배웠다. 1383년 우왕 9년에 31세에는 司馬試에 합격하였다. 이때 그의 學問은 크게 성취되었다. 이해에 吉再는 知錦州事로 부임한 아버지를 錦州 任地로 찾아가서 뵈웠고 中郎將 申勉의 딸과 거기서 혼인했다. 이것이 吉再가 錦山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吉再의 妻家は 매우 富裕했다. 이 妻家の 재산은 이후 吉再의 경제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吉再의 後孫이 善山과 錦山에 나누어 거주하게 되었다. 익년 우왕 10년에는 부친 喪을 당하여 그는 三年喪을 마쳤고 34세 되는 1386년 우왕 12년 丙寅에 文科에 及第했다. 그리하여 濟州牧司에 補職되었으나 부임치 않았다. 後日에 君王이 된 太宗 李芳遠과는 같은 등리에 살면서 太學(成均館)에서 같이 공부하고 同榜 及第했기 때문에 매우 친밀했다. 35세 1387년 우왕 13년에 成均學正을 除授받고 익년에는 成均館博士가 되어 最高學府인 國立大學에서 太學生들을 교육했다. 公은 陽村 權近의 총애와 축망을 받았다. 陽村은 그를 칭찬하여 「나의 弟子 중에서는 吉再父가 第一이라」고 했다. 公이 成均館에서 講義와 연구에 열중할 때 國內外 情勢는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禡王과 崔瑩이 全國에 動員令을 내려 遼東征伐을 斷行하게 되었고 李成桂將軍의 威化島 回軍 쿠데타가 일어나 政局은 急轉直下했다. 國內의 實權은 李成桂가 장악했고 禡王을 쫓아내고 그의 아들 昌王이 들어서고 救國의 영웅이던 수상이요 총사령관이던 崔瑩이 숙청되었다. 天下는 李成桂의 시대로 서서히 막이 열리고 있었다. 1389년 昌王元년에 길재는 門下注書에 除授되었다. 그러나 治隱은 高麗의 政局에 깊은 충격을 받고 그는 결연히 去國을 결심했다. 李成桂 鄭道傳 鄭夢周 趙浚 등의 9功臣들이 廢假立眞을 내 세워 禡王 昌王父子를 폐하여 귀양 보내 處刑하고 恭讓王을 세웠다. 이에 吉再는 비장한 각오로 가족을 이끌고 棄官歸鄉 할새 長湍別邸에 있는 恩師 李穡을 찾아 거취를 상의 했다. 牧隱은 「나 같은 무리는 大臣이기 때문에 나라와 더불어 기쁜일과 슬픈 일을 함께 해야하니 물러갈 수 없거니와 그대는 물러감이 옳다」고 했다. 여기서 治隱은 恩師와 情談과 時局을 논하며 하룻밤을 묵었다. 牧隱은 治隱에 詩를 지어 주며 이별했다. 그詩를 소개하면,

從遊泮水號通經 及第注書雙鬢青
辭我携家故鄉去 且聆吾語苦丁寧
讀書須踐古人迹 對策要登天子庭
軒冕儻來非所急 飛鴻一箇在冥冥²²⁾

그는 禡王朝에 出仕하여 昌王 父子를 섬겼기 때문에 공민왕의 아들인 禡王을 辛旽의 자식이라고 몰아 부쳐 禡王의 아들인 昌王과 함께 廢假立眞이란 李成桂派의 陰謀 陰謀 陰謀에 의하여 廢黜되어 恭讓王이 翁臨되자 治隱은 이에 不滿을 품고 不事二君을 표방하고 政界를 떠나고야 말았다. 고향인 善山 金烏山 아래 蟄居하면서 時局을 개탄하고 母親을 봉양했다. 그는 金烏山 아래서 1387年 禡王 父子가 處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통곡을 하고는, 섬겼던 임금님의 상복을 입고 三年喪을 살았다. 이를 볼 때 治隱이 官界를 떠난 이유도 알만하다. 그는 禡昌王이 쫓겨난데 대한 커다란 분노와 실망 그리고 李成桂派에 의하여 翁臨된 꼭두자식 왕을 섬기기를 싫어한 것이었다. 39세 공양왕 3년 1391년에 鷄林敎授 安邊敎授를 제수했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吉再는 李成桂派가 辛旽의 자식이라고 덮어 씌운 禡王과 그의 아들 昌王朝에 벼슬을 살았다하여 辛朝의 臣下를 自稱했다.²³⁾ 吉再는 禡王 昌王 父子가 斬弑되었다는 悲報를 듣고 통곡하고 三年喪을 지극한 슬픔과 애도 가운데 살았다. 廢王 父子가 江陵과 江華에서 各各 朝廷에서 파견된 官員에 의하여 斬弑된 것은 恭讓王 즉위 원년 12月이었다. 이 소식을 익년 공양왕 2년 1390년에는 이 소식을 傳聞할 수 있었을텐데 吉再의 行狀과 年譜에 의하면 공양왕 3년 1391년에 듣고 상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이 당시 麗末에는 廢王 斬弑의 事實이 秘密에 붙여져 地方까지는 잘 몰랐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공양왕 4년 1392년 壬申年에 高麗는 亡하고 말았다. 吉再의 비통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는 북향 통곡 했다. 이 때 그는 40세였다. 首陽山 伯夷 叔齊 처럼 金烏山에 은둔한 吉再의 生計가 막연했다. 採薇로 생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의 生活은 寒貧하기 그지 없었다. 그는 家庭的으로도 매우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申氏夫人의 故鄉인 錦州로 이사갈것을 夫人은 강력히 권고했다. 錦州에는 申氏夫人의 淸정에 상당한 재산과 田地가 있어 경제적인 기반이 튼튼했다.²⁴⁾ 그러나 先生은 父母之鄉을 차마 버릴수 없다고 몇해를 미루며 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어려운 사정을 듣고 太祖 4年 乙亥 1395년에 知郡事 鄭以諄가 梧桐閑田을 주어 生計를 삼게 했다. 이로써 先生의 이사 문제는 자연 해결되었다.

22) 李穡:『牧隱詩文集』,「牧隱詩稿」卷之 35, 門生吉注書頃次于家携老少還善州來別一宿雨去. 『治隱先生言行拾遺』卷下.

23) 『朝鮮王朝實錄』定宗實錄 卷 5, 2年 庚辰 7月條.

24) 『治隱先生言行拾遺』卷上. 年譜, 行狀.

李樹健:「士林派家門의 經濟的 基礎」,『前掲書』, p.185.

先生의 칩거지에는 언이여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太祖 3年 쫓겨났던 공양왕이 三陟에서 絞殺되고 모든 王氏들이 全國에서 모두 참살되었다는 悲報를 듣고 고려 遺臣 吉再는 비통한 심정을 누를길 없었다. 그는 이 울적한 심정을 자연 속에서 달래며 學問의 연구와 弟子의 교육에 심혈을 경주했다. 先生의 門下에는 先生의 高邁한 學德과 介潔한 志操 卓絕한 忠節을 사모하여 원근에서 선비들이 雲集했다. 先生은 그들에 孝悌忠信과 經傳, 性理之學을 강의 토론했다.

이때 先生의 門下에 負笈하여 와서 가르침을 받은 諸公은 朴瑞生(大司憲) 金叔滋(江湖) 曹尚治(副提學) 金峙(府使) 吉久(弟) 吉師舜(子) 崔雲龍(佐郎) 金克一(慕庵) 등이다. 定宗 2年에 옛 太學 同門이던 李芳遠(太宗)이 當時 世子로서 각별한 友誼에서 太常博士를 除授하고 간곡히 불렀다. 그리고 守令도 上京할것을 독촉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은 驛馬를 타고 上京했다. 이는 世子인 李芳遠이 書筵官으로 더불어 遺逸之士를 論할 때 「吉再는 剛直한 사람이다. 내 일찍 同學했는데 오랜동안 보지 못했다」고 함에 正字 田可植이 吉再와 같은 고향 사람이어서 고향집에서 孝行의 아름다운 행실을 상세히 이야기했더니 世子가 매우 기뻐하여 三軍府에 命令을 내려 移牒하여 부르게 했던 것이었다. 吉再가 驛傳을 타고 上京함에 世子가 定宗에 말하여 奉常博士를 除授했다. 吉再가 大闕에 가서 定宗을 뵈옵고 謝恩 肅拜치도않고 東宮에 글을 올리

再於昔日 得與邸下 讀詩泮宮 今之召臣不忘舊也 然再於辛朝 登科筮仕 及王氏復位 即歸于鄉 若將終身 今者記舊徵召 再欲上謁即還 從仕則非再志也²⁵⁾

라고 했다. 이에 世子 李芳遠(後日의 太宗)은 말하기를 그때의 말한 바는 곧 綱常不易之道라 義難奪志라. 그러나 부른것은 나요 벼슬을 준것은 임금님이시니 임금님께 辭職을 告함의 禮를 올리시오」라 했다. 이에 吉再가 다시 임금님께 上書하니

略曰 臣本寒微 仕於辛氏之朝 擢第至門下注書 臣聞女無二夫 臣無二主 乞放歸田里 以遂臣不事二姓之志 孝養老母 以終餘年²⁶⁾

라 한것이 그 上書 內容의 개략이다. 定宗이 이 上書를 보고 괴이하게 생각하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고 물었다. 左右가 사람은 寒儒라고 대답했다. 明日에 왕이 經筵에 나아가서 權近에 물기를 吉再가 抗節不仕하니 옛날에 이와 같은 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할가고 함에 恩師 權近이 對答하여

如是之人 當請留之 加以爵祿 以勵後人 請之而強去 則不如使之自盡其心之爲愈也 光武之賢主也 而嚴光不仕 士固有志 不可奪也²⁷⁾

25) 『朝鮮王朝實錄』 定宗實錄 卷 5, 定宗 2年 庚辰 7月條.

26) 上揭書.

27) 上揭書.

라고 했다. 이에 定宗은 그 고향에 돌아감을 윤허하고 그 집을 다시 일으킬 것을 명령했다. 이에 吉再는 다시 고향 金烏山下에 돌아왔다. 이 얼마나 偉大한 忠節인가 가워 忠臣의 龜鑑이라 하겠다. 史臣 洪汝剛이 評하여

或以爲辛氏既非正統 注書亦非達官 再宜仕於盛朝 不須拘於小節 愚謂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辛氏雖僞 既委質以爲臣 注書雖微 亦從仕而食祿 安得以僞朝微官而露君臣子之分乎 且節義天地之常經 莫不受之於有生之初矣 然其誘於功利 淫於爵祿 不能皆有以全之也 辛氏之亡已久 無子孫之可托矣 再也能爲舊君 守其節義 等功名於浮雲 視爵祿於樊屣 若將終身於草野 亦可謂忠烈之士矣²⁸⁾

이라 했다. 禡昌王이 辛氏라 하여 僞朝라 하나 吉再는 그 朝廷에 從仕하여 祿을 먹었으니 不事二君하고 忠節을 지키는 것은 忠烈之士라 할만하다고 했다.

吉再 50세 되는 해 太宗 2年 壬午 1402년에 母親喪을 당하여 朱文公家禮대로 3年喪을 살고 長子 吉師文이 죽자 斬衰服을 입었다. 太宗 3年 癸未년에는 慶尚道觀察使로 와 있던 南在가 先生의 忠節을 찬미 하는 詩를 지어 보내었다. 그 詩에

高麗五百獨先生	一代功名豈足榮
凜凜清風吹六合	朝鮮億載永嘉聲
天縱宣尼後生	道肥身瘦德尊榮
離倫獨立清標迥	遠播佳名樹教聲
阿世悠悠半此生	乘時倖倖可誇榮
一身軒冕須臾事	風水冷冷萬古聲 ²⁹⁾

라고 母親喪을 당하여 墓의 곁에 廬幕을 짓고 居喪하고 있던 高麗의 忠臣에 붙인 찬미시다. 이에 春亭 卞季良 蘭溪 咸傳林 陽村 權近 諸儒 賡歌하여 治隱을 찬양한 詩卷을 吉再의 아우 僧處愚가 서울로 가지고 가서 陽村에 보이니 陽村이 次韻하고 詩序를 지어 찬미했다.

야은의 出天 忠節은 朝廷에서 찬양받을 뿐만 아니라 褒賞되었다. 야은의 淸貧한 生活를 걱정하고 도올러고 知善州郡事 李揚이 先生을 방문하여 땅이 궁벽하고 밭이 메말라 살만한곳이 못된다 하고 栗谷의 園田을 移錫하여 先生의 生計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先生은 무릇 物이 남음이 있으면 其終을 保키 어렵다하고 所錫之田을 生計에 必要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돌렸다. 그리고 선생의 집이 가난하여 짓지 못하던 家廟를 慶尚道觀察使 南在가 官給 資材와 人員으로 지어주었다. 이에 先生은 영세토록 살터전을 닦게 되었다. 그리고 祠堂之制와 祭享之儀를 모두 朱文公家禮에 의하여 행했다.

28) 上揭書.

29) 『治隱先生言行拾遺』 卷下.

太宗 9年 1409年 己丑에 恩師 陽村 權近이 죽음에 先生은 心喪 3年을 살았고 太宗 65年 丁酉에 先生 66세시 은사 朴賁가 죽음에 心喪 3年을 살았다. 先生은 世宗即位年 戊戌에 66세시 世宗이 先生의 節義를 崇獎하여 아들 吉師舜을 叙用하여 불렀다. 나가는 아들에 先生은

임금이 먼저 臣下를 부르는것은 三代 이후에 듣기 드문 일이다. 벼가 草野에 있는 몸으로 임금님의 부름을 입었으니 비록 벼슬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은혜와 의리는 다른 泛然한 臣下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너는 마땅히 내가 고령을 향한 마음을 본 받아 너는 조선임금을 섬기거라 네 아버지의 마음은 이밖에 더 바랄것이 없겠다.³⁰⁾

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以上에서 吉再의 生涯를 살펴보았다. 그는 한국 역사상에서 드물게 보는 위대한 忠臣이었다. 吉再는 어려서 부터 出天의 孝道를 가지고 있었다. 공이 8세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벼슬살이하는 아버지를 따라 가시고 외가에 홀로 남아 있게 되자 어머니가 그리워 울면서 남쪽의 시냇가에 가서 가재를 잡아 애끓이는 思母曲을 불렀다.

가재야 가재야
너도 엄마를 잃었나
나도야 엄마를 여의었단다
내가 너를 삼아 먹을줄 알지
네가 엄마를 잃은것 나와 같기에
그래서 너를 놓아 보내 준단다.

하고 구슬피 울어 外家와 동리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친어머니 뿐 아니라 계모 盧氏夫人을 섬기는베도 지성과 효도를 다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상을 다 정성껏 슬프게 살고 3년상이 끝나도 나무꾼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상하게 할까봐 묘 곁에 廬幕을 짓고 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朱子家禮도 斂葬 祥禪의 禮를 한결 같이 했고 뿐만 아니라 恩師가 돌아가셔도 心喪 3年을 살았다. 治隱行狀과 年譜에는 恩師 陽村權近과 朴賁의 逝去에 心喪 3年을 산것으로 되어 있으나 牧隱의 卒에도 陶隱의 卒에도 心喪 3年을 살았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리고 圃隱의 卒에도 心喪을 살았을 것이다. 그 세분은 모두 治隱의 스승이었다. 꼭 心喪 3年이 아니라도 얼마간은 心喪했을 것이다. 記錄이 소후하여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자 한다. 야은은 陽村 權近이 1409年 太宗 9年에 他界하자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吉再의 忠節은 東國 忠節의 龜鑑으로 추앙되어왔다. 南孝溫은

秋深百川明琉璃 霜摧萬樹紅錦綺
辛朝注書吉治隱 秀於嚴霜清於水

30) 上揭書.

大節銘在蒼生口	烏山截空二百祀
武王革命天眷隆	夷何爲哉而獨恥
鴻毛命輕義重山	公與達可知此理
達可身輕二姓王	杞梓寸朽鑑中恥
公身所委唯一君	眞知獨行誰與比
漢家更崇用里生	周王義不臣箕子
茲山之下賜骸骨	田園九畹滋蘭蕙
西河風俗化子方	至今嶺南多命士
含我鼻祖龜亭公	先生德美談亶亶
監司此道作家廟	遠說亦在長老耳
曾於家訓鮑聞之	匹馬冠僅遇故里
屬余斷酒安用爵	作詩招魂而剪紙 ³¹⁾

라고 했다. 秋江은 정몽주와 길재를 비교하고 있다. 포은은 二姓王을 섬겨 忠節에 현이 있다 했다. 그러나 야은은 오직 한 임금을 섬겼으니 진짜 忠臣이라 했다. 포은은 15年間이나 臣下로서 임금으로 섬긴 禍王 昌王을一朝에 廢黜하고 斬殺한 九功臣의 한 사람이었다.³²⁾ 그러나 야은은 李成桂와의 9功臣이 쿠데타를 일으켜 廢假立眞의 口號下에 禍王 昌王을 폐출하고 恭讓王을 옹립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 갔던 것이다. 그는 禍王 昌王의 臣下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辛朝注書라 했다. 그리고 스스로 僞朝에서 벼슬했다고 표현했다. 李成桂가 말하는 辛朝라도 僞朝라도 좋았다. 그는 그 辛朝의 臣下를 자칭했다. 더욱 廢假立眞이란 것 자체가 그들이 革命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꾸민 잔악한 흥계란 것을 고려의 충신들은 알고 그것을 신빙치 않았던 환경하에서는 용기있고 지조 있는 충신은 기꺼이 辛朝의 신하임을 강조하고 있다.

종래 야은의 충절 出處에 對하여 논란이 많았다. 어찌서 辛朝란 僞朝에 벼슬하고 恭讓反正이란 王氏朝가 들어섰는데 물러갔느냐는 것이 그 하나요 또 하나는 禍昌王을 실제 王氏라고 보았다면 왜 李朝에 와서 辛朝라 했느냐는 것이 그 것이다. 그는 李成桂와의 廢假立眞의 謀略과 쿠데타를 싫어하고 미워했다. 야은 그는 아마도 辛氏朝라는 메는 저항을 느꼈음에 틀림없을 것이나 李朝의 國王 앞에서 그들이 말하는 辛朝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辛朝의 臣下임을 강조하고 辛朝 以外的 君王은 모시지 못하겠다는 강한 忠節은 사실상 辛朝란 禍昌王을 君王으로 인정하고 증정하는 강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 면에서 治隱의 偉大性이 있다. 僞朝라고 主張하는 李朝의 宮中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僞辛朝의 臣下임을 과시한 公의 忠節은 可히 萬古에 빛나는 丹忠이다. 答安邦俊別紙와 論安邦俊與俞啓答問에서 맹렬하게 반박하여 吉再自身이 辛朝注書라 말하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이나 그리고 徐首生博士의 論斷과같이 治

31) 南孝溫：『秋江先生文集』卷之 2.

32) 『高麗史』137, 列傳卷第 50, 辛禠 5, 14年條.

『高麗史節要』卷第33辛禠 14年條에 91, 9功臣은 李成桂 沈德符·池湧奇·鄭夢周·懷長壽·成石璘 趙浚 朴堧 鄭道傳 등 이성계와의 인물들이었다.

隱은 決코 前朝의 臣이라 했지 辛朝라 稱하지 않았다고 억지 강조 할 필요도 없으며 또 實錄에 明確히 治隱 自身이

再於辛朝登科筮仕 及王氏復位 即歸于鄉³³⁾

臣本寒微 仕於辛氏之朝 擢第至門下注書 臣聞女無二夫 臣無二主³⁴⁾

라고 했던 것이다. 史臣의 論評처럼 僞朝라고 말하지만 설긴이는 임금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야은의 君臣觀이었다.

公의 忠節은 後代 儒林의 推仰을 받아 首陽山 夷齊에 겨누어 採薇亭을 公의 遺墟에 짓고 萬古濁流 속에 屹然聳立한 黃河 砥柱山을 擬하여 柳成龍의 文을 받아 그 兄 柳雲龍이 砥柱中流碑를 세우고 또 그의 採薇亭에 百世淸風이라 써 後世 儒士의 忠節의 萬古師表로 추앙되었고 李朝 綱常유지의 원동력이 되었다. 殉節한 정포은 守節한 길야은의 脈絡을 이어 性理學의 연원을 이었고 忠節과 大義明分의 道統을 이었다.³⁵⁾

V. 節義派의 人脈

鄭 溫

號는 隅谷이요 本貫은 晉州다. 高麗 정승 碩의 아들이다. 벼슬이 司憲大夫에 이르렀다.

革命후 李朝에서 여러번 벼슬로 불렸으나 靑盲이라 핑계하고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심지어 술임으로 침을 주어 시험하기 까지 했으나 눈을 감작이지 않아 눈이 먼것으로 오인케 했다. 이와 같이 그는 고려에 대한 節義를 굳게 지킨 高麗 遺臣이었다. 世上에서 圃隱의 죽음과 治隱의 떠난것과 隅谷의 靑盲을 殷나라 三仁에 比했다.³⁶⁾

退溪先生이 公의 遺墟를 지나다가 詩를 지었다.

金 濟

號는 白岩이요 本貫은 善山이다. 金湍의 兄이다. 高麗에 벼슬 살어 知平海郡事に 이르렀고 平海知郡事로 있을때 고려가 亡하고 李成桂가 등극했던 말을 듣고는 벼슬을 버리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조선의 혁명되자 이름을 齊海라 했다. 이것은 齊나라 魯仲連의 東海를 밟는 다는 뜻을 나타낸것이다. 그래서는 벽에 詩를 써 붙이기를

33) 『朝鮮王朝實錄』 定宗實錄卷 5, 定宗 2年 庚辰 7月條.

34) 上揭書.

35) 徐首生: 『善州儒學思想研究——治隱之儒學與節義中心——』, 螢雪出版社, 1975.

『治隱先生言行拾遺』·『海東名臣錄』·『新增東國輿地勝覽』·朴性鳳: 吉再, 『韓國의 人間像』第4卷, 참조.

36) 蔡弘履 權應範, 沈奎: 『嶺南人物考』 卷之 8, 晉州 條.

呼船東問魯連津 五百年今一介臣
可使孤魂能所死 願隨紅日照中垠

이라 하고는 배를 바다에 띄워 타고 나갔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正祖朝에 내린 임금의 敎書에

嶺南 선비들의 말에 의하여 高麗 忠臣이며 皇明 禮部尚書인 金澍에게 忠貞이란 諡號를 내리고 이제 장차 신하로 하여금 宣侑하러 할 즈음에 또 들으니 그 형의 이름은 濟오 號는 白岩인데 平海郡守로서 詩를 벽에 써 놓고 바다에 떠서 간 후 죽은 곳을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濟海라 고친 것은 대개 濟나라 선비 魯仲連의 바다를 밟은 것을 생각한 것이라 한다. 동쪽나라의 풍속이 심히 어리석다가 箕師 이후로 彝倫의 차서를 얻어 들었으며 鄭文忠 등 여러 어진이에 이르러 비로소 이것을 倡明하여 모두 隱으로 號를 지어 이들을 九隱이라 일컬으니 곧 國隱牧隱陶隱冶隱이 이것이다. 이 밖에 72인이 함께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그곳을 杜門라이 이름했으며 또 典書 尹璜이 스스로 號를 後松이라 한 것이라든지 掌令 徐甄이 望置에 寄感한 것이 前後에 磊落해서 서로 바라보아 이제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耳目에 빛나고 있다. 오직 白岩은 忠貞公 같은 아우를 두어 節義가 쌍으로 이루었으니 옛날 孤竹君의 두 아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거늘 지금까지 湮沒하여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바다위에 뱃사공이나 고기잡이들이 그의 遺墟를 가리켜 往往히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을 뿐이로다. 대개 일이란 나타나고 감추어지는 것이 있고 이치는 屬하고 퍼는 것이 있으니 어느것이냐. 時期와 운명이 있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아깝게도 이 사람의 일이 들려오기를 늦게 하였도다. 弘文館으로 하여금 이름을 바꾸는 법전을 의논하게 할 것이요 이같은 사람은 東海물을 길어오고 西山의 고사리를 캐어다가 그의 한번가고 돌아오지 않은 영혼을 부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니 諡號를 내리는 날에 바다 위에 제사지내어 조정의 曠感하는 생각을 표하노라 하고 친히 祭文을 지어 承旨를 보내어 賜祭하였는데 이르기까지 세상이 草創하매 맑은 선비를 이에 보내겠노라 하고 친히 祭文을 지어 承旨를 보내어 賜祭하였는데 이르기까지 세상이 草創하매 맑은 선비를 이에 보겠노라. 岩穴에 살기도 하고 바다에 뜨기도 하며 혹은 숨고 혹은 나타냈도다. 오직 漢나라 太史가 伯夷의 일을 特書한 것은 이름이 드날리지 못한 것을 슬퍼함이 있나니 그 뒤 千載나 되어서 그 風度를 들은 자가 늙다랗게 并較하여 아우가 형의 다음이 되었도다. 滄海가 浩渺한데 한번 바라보니 荆楚로다. 봄 꽃은 비오듯 하는데 杜宇는 어느 곳에서 우는고 동쪽 積水가 있으니 魯連의 밟던 바요 어질어서 가지런하기를 생각하였으니 時代는 다르나 道는 같도다. 武王이 하늘 뜻을 응하매 먼저 商間에 禮를 하였도다. 내가 지금 紹述하여 드디어 熊魚를 褒獎한다 하나 무엇으로 주리오. 아아! 너 太常에게 묻노라. 형과 및 아우여 그 譜命이 빛나도다. 드디어 近臣을 명해서 넓게 혼을 불러 술잔을 권하는 바이다. 英爽이 사라지지 않았거던 형과 또 아우는

라 하였다. 두 兄弟가 다 고려의 충신으로 千秋에 이름을 날렸던 것이다.³⁷⁾

裴 尙 志

號는 柏竹堂이요 本貫은 曲江이다. 高麗朝에 벼슬하여 太僕寺事を 지냈다. 麗末에 고려의 政局이 어지러워지고 李成桂파가 활개를 치게 되자 비판하여 벼슬을 버리고

37) 『嶺南人物考』卷之 1, 安東篇.

安東 金溪村에 칩거했다. 그의 卜居하는 집의 堂號를 「柏竹」이라고 號판을 부쳐서 뜻을 보였다. 革命이 되어 조선왕조가 들어 서자 杜門不出하여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 公이 治隱으로 더불어 酬唱한 詩가 治隱集中에 실려 있다.³⁸⁾

權 定

字는 安之요 號는 思復齋다. 공민왕 2年 癸巳에 나서 禰王 12年 丙寅에 文科에 올라 여러 벼슬을 거쳐 左司諫에 이르렀다. 고려가 亡하자 고향에 내려와서 은둔했다. 李朝에서 여러번 大司諫으로 불렸으나 한번도 나아가지 않았다. 節義를 지키다 太宗 11年 1411년에 죽었다. 先生은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결백하였으며 學問을 힘써 學行으로 名振하고 諫諍하는 風節이 當代에 우뚝했다. 朝鮮朝에 들어와서 安東 玉山洞에 隱居한 公을 承旨로 太祖가 여러번 불렀고 太宗이 大司諫 大司憲으로 여러번 불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고 守節타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의 살던 마을을 棄仕里라 불렀다.³⁹⁾

李 陽 昭

字는 汝建이요 號는 琴隱이다. 本貫은 順天이다. 陶隱 李崇仁의 門人이다. 太宗 李芳遠과는 布衣의 交를 맺어 친밀했으며 同庚 同榜으로서 같이 太學에서 공부하여 매우 친밀했다. 고려가 亡하고 李成桂가 등극하자 공은 漣川陶唐谷에 숨어 살아 조정에서 여러번 불러도 守節하고 나오지 않았다.

太宗이 北幸할제 公이 隱居하는 곳을 찾아가서 만나 술을 배풀고 옛정을 이어 옛 회포를 풀었다. 술이 거나해지자 太宗이 聯句를 불러

秋雨半晴人半醉

라고 읊으니 公이 和答하기를

暮雲初捲月初生

이라했다. 太宗이 감격하여 악수하고 「자네는 참 옛 친구로다」하고 後車에 싣고 같이 서울로 데리고 갈려고 했으나 公이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太宗은 그래서 그에게 知谷山郡事를 除授했다. 谷山에는 靑龍寺가 있어 옛날에 太宗 李芳遠과 李陽昭가 함께 공부하던 그리운 곳이었다. 그래서 이 고을을 그에게 맡기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도 公은 완강히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太宗이 그의 節義와 志操를 가상하여져 기리고 公이 은거하는 곳을 淸華山이라 명명하고 第宅을 下賜했다. 公이 죽기전에 자신의 銘旌을 「高麗進士李萊之墓」라 썼다. 太宗이 이를 듣고 嗟嘆하면서 「살아서 그 마음을 굽

38) 蔡弘遠, 『嶺南人物考』 卷之 1. 安東人物條.

39) 上揭書.

히지 않더니 죽어서도 벼슬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았도다」했다. 太宗이 諡를 淸華라 나리고 葬地와 守塚 四戶를 하사했다.⁴⁰⁾

李 敢(致)

初名은 敢 후에 致라 改名했다. 字는 義民 號는 文閑堂 本貫은 永川이다. 공민왕 11年 1362年 壬寅에 나서 禡王 6年 庚申에 進士에 합격하고 1388年 창왕 원년에 文科에 壯元급제했다. 公은 永川 臨臯面 良巷里에 鄭圃隱과 같은 洞리에 살았고 조정 사환도 서로 선후해서 했다. 諫官이 되어 直言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공양왕 2년에는 司憲糾正이 되어 무절제한 施賞을 極論하다가 왕의 逆鱗에 저촉되어 地方의 監務로 좌천되었다. 이에 不滿을 품은 諫官들이 일제히 병을 핑계로 집무를 거부하자 곧 司憲持平에 임명되었다. 익년에 左獻納이 되어 鄭道傳을 탄핵하였다. 1392년 정몽주가 살해되고 정세가 역전되어 이성계 파가 복귀하고 고려 왕실파가 실각하게 되자 公은 長沙로 유배되었고 太祖 登極하자 北靑으로 移配되었다가 곧 풀려나 고향에 은거했다. 고려가 亡하자 그는 節義를 지켜 8年 동안 形跡을 감추고 世事를 떠나 兩親을 봉양했다. 그의 孝道는 지극했다. 이후 조정에서 行誼로 누차 불려 掌令執義를 지냈다. 이때는 이미 世宗 盛世라 고려 遺臣으로서 守節하다가 새王朝에 仕官해도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新王朝에 벼슬을 했다. 그는 守節과 仕官의 進退를 함께 한 분으로 그의 節義와 仕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가 死後에 孝子門이 세워졌다.⁴¹⁾

趙 承 肅

字는 敬夫 號는 德谷 本貫은 咸陽이다. 禡王때 登第하여 고려말에 監務의 벼슬에 있었다. 고려가 망하고 李成桂가 篡奪 登極하자 그는 扶餘監務의 벼슬을 버리고 李朝의 祿을 먹기를 거부하고 咸陽 德谷에 은퇴하여 숨어 살면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杜門不出하고 一心 고려의 유신으로 고려를 사모하면서 後學을 敎育하여 啓發 시키는 것으로써 자기의 마지막 사명감으로 삼았다. 그는 弟子들에게 忠孝사상을 심는데 진력했다. 그 때문에 그의 門下에서는 名儒碩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公은 포은 정몽주의 門下에서 受學하여 포은으로부터 忠孝와 性理學과 大義明分을 배웠다. 그는 同門인 야은 길재와 친밀하게 金蘭之契를 맺고 友善했다. 公이 治隱에 詩를 지어보내니

負山臨水卜閑居 月夕烟朝興有餘
京洛故人如同我 竹林深處臥看書

40) 蔡弘履, 權應範, 沈奎魯:『嶺南人物考』卷之 8, 慈仁條.

41) 沈達漢, 李○珩:『嶺南人物考』卷之 9.
『朝臣名臣錄』·『太宗卷錄』 참조.

라 했다. 그의 忘世事라고 閑雲野鶴이 되어 오직 絕世間하고 江湖 깊은 곳에서 독서로 세월을 보내는 지조 높은 선비의 모습을 안전에 방불케 한다.

이웃에서 혼례식에 입을려고 官服 冠帶를 빌리려오면 그는 이 官服은 나의 옛날 朝服인데 떨어져서 차마 빌려줄수 없다 했다. 그가 죽자 유언으로 이 고려의 관복으로 염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고려의 遺臣으로 생애를 마쳤다.

杜門不出하고 세상에 나오지 않는 그에게 옛 친구들이 혹 지나가다가 방문하면 그는 병석에 누웠다고 핑계대고 만나주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들이 또 안부 편지를 보내오면 또한 세상에 걸교하여 일절 편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의 存沒을 알수 없었다. 그는 周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節義를 지킨 首陽山의 伯夷 叔齊의 옛 東洋의 忠節觀을 실천공행한 고려의 충신이었다.

公이 著作郎으로 明에 使行하여 紫金魚袋를 하사 받아 公의 華聞이 中朝에 떨치게 되었다.

守節하는 先生에 太宗이 沈香几를 下賜하여 그 序에 이르기를

爾性堅剛 適與此物相似 故乃錫以類

(그대의 성품이 견강하여 마침 이 물건과 같기에 이것을 그대에 내리노라.)

고 했다. 御製 銘에 이르기를

文起八代 名高一國 性本孤直 威武不屈 唐之魏徵 漢之汲黯 得一人鑑 社稷以賴 欲賜 金玉爾所不取 茲有一物 與之相類 類以錫之 肆旌其直 雖退江湖 庶無忘國。

이라 했다. 成宗朝에 賜祭하고 俞雷溪 好仁이 致祭文을 지었는데 「首陽明月 栗里清風」이라 했고 또 金烏與同調 靖節後一人이라 하였다. 公의 忠節을 君王이나 一般이 모두 金烏山 길재와 나란히 칭송했다.⁴²⁾

李 午

號는 茅隱 本貫은 載寧이다. 上將軍 純誠輔祚功臣 李小鳳의 孫이요 司宰令 李日善의 子다. 高麗 忠臣 持平 溪隱 李申의 弟다. 李申은 圃隱 鄭夢周의 門人으로 恭讓王時 司憲府持平으로 있을 때 金雲陽·李崇仁 등과 함께 高麗를 屠殺하려는 李成桂派의 羽翼인 鄭道傳·趙浚·南閔등을 彈劾하여 追放했으나 李成桂의 신속한 政界 복귀로인하여 도리어 고려 王室派가 反擊 當하여 流配 도중에 杖毒으로 죽었는 忠臣이었다. 그는 뛰어난 孝行으로 旌閭되어 密陽郡 上南面 召音里를 孝子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李午의 兄弟는 6人으로 申 戌 丑 午 酉 寅 이었다. 李午는 李日善의 넷째 아들이었다. 公은 麗末의 名儒인 牧隱 李穡, 圃隱 鄭夢周등의 門下에서 受學하여 學行으로 當

42) 『嶺南人物考』 卷之 8. 咸陽篇, 『德谷集』.

世에 推仰되었다. 恭讓王時에 進士試에 合格했다. 그러나 亂世라 仕官치 않았다. 1392年 高麗가 滅亡하자 痛哭하고 開京 京都를 영원히 등지고 咸州 茅谷에 卜地 隱居했다. 지금의 咸安郡 山仁面 茅谷洞이다. 이곳의 자기 居住 집둘레에 垣牆을 쌓아 城벽처럼 두르고 그곳에 蟄居하면서 고려를 위한 忠節을 지키면서 여생을 高潔이 지냈다. 이 곳 담(垣牆)밖은 新王朝의 朝鮮乾坤이었지만 이 담(垣牆)안은 高麗의 天地였다. 이를 世稱 高麗洞이라 한다. 그후 太宗 때 李午를 여러번 벼슬로 불렀으나 끝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고 守節했다. 그는 자식 李介智에게 항상 훈계하기를

너 또한 高麗朝의 遺臣이니 어찌 新王朝(朝鮮王朝)에 벼슬살이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죽은 뒤에라도 절대로 새왕조에서 내려주는 官名은 使用하지 말라. 또 내 神主도 이곳 담 垣牆안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는 안된다.

고했다. 그의 아들 李介智는 아버지의 遺訓을 받들어 朝鮮에 벼슬하지 않았다. 비로서 손자대에 李朝에 仕官했으니 長孫 李孟賢이 世祖시에 出仕하여 弘文館副提學에 올랐다.

茅隱先生이 처음 咸州에 내려 와서 卜居할때 紫薇花(百日紅)가 만발했다. 李公은 이 꽃을 사랑하면서 이 나무 아래 소요하면서 詩를 지었다.

滄溟夜夜迎孤月 杞鞠年年關小睦
回首未逢堯舜世 甘心不讓牧樵翁

밤마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등근 달을 맞이하고
해마다 구기자과 국화를 심을려
작은 밭매기를 두지배
머리를 돌려 돌아 보았어도
요순 시대는 만날 수 없나니
소먹이는 아이나 나무꾼과
벗함을 사양하지 않노라.

라고 읊었다. 公의 심경을 알만하다. 이후 紫薇花는 載寧李氏와 盛衰를 함께 했다.⁴³⁾ 이후 이 紫薇花처럼 後孫이 繁盛했고 茅隱의 忠節은 傳世하여 後孫에 節義之士가 많이 배출되었다.⁴⁴⁾

金 可 行

本貫은 善山이다. 祖는 和義君 金達祥이니 恭愍王朝에 左代言, 上護軍 楊廣道都巡撫使 密直副使 同知密直司事에 올랐으며 父 金君鼎은 공민왕 9年 文科에 及第하여 典

43) 鄭述:『咸州志』.
此花與李氏同盛衰.

44) 『咸州志』人物篇.
李載浩:「茅隱先生の 高麗洞」, 『淡水 第11輯, 淡水會』, 1982.

醫副令 右代言을 歷任하고 紅巾賊의 亂에는 扈從하여 一等功臣이 되었다. 그러나 天僧辛旽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辛旽에 의하여 반격받아 공민왕 17年 家産을 籍沒당하고 流配되어 淸州의 配所에서 죽었다. 可行은 이와 같은 家門의 慘禍를 겪으면서 成長했다. 그는 勉學에 힘써 當代의 巨儒 陶隱 李崇仁의 門下에서 10여년간 受學하여 學問이 높아 登第후 麗末 革命之際에 東萊縣令으로 在職하고 있었다.

그의 再堂叔 禮儀判書 金澍는 八道都觀察使 王康과 함께 賀節使로 明나라에 使行했다가 歸路에 압록강 기슭에서 李成桂의 篡奪 소식을 듣고 통곡 3日만에 明나라로 回路하고 말았다. 王康은 쓸쓸히 돌아와 蒼桑之變의 슬픔을 만끽했다. 高麗가 滅亡했으나 一部の 忠臣들에 의하여 고려 復興을 계획한것이 없는바 아니다. 金可行은 그 하나라고 보겠다. 옛 李成桂의 同志요 武將이던 參贊門下府事 朴葢가 東萊縣令 金可行과 塩場官 朴仲質로 하여금 當代 名碩 卜術家 李興茂에게 占을쳐 恭讓王과 李成桂 中에 누구의 運命이 더 좋으며 또 王氏 가운테 누구의 命運이 제일 귀한가를 占쳤다. 이는 大逆不道の 謀逆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노릇이었다. 李興宗은 南平君 王和의 命運이 가장 귀하고 그 아우 鈴平君 王居가 그 다음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金可行은 金殿玉階에 行列이란 占卦가 있어 賀禮할만하다고 했다. 朴仲質은 杆城君 元子の 命數를 占쳤다. 그리하여 이들은 朴葢와 金可行 朴仲質등이 王氏와 合力하여 王氏를 다시 추대하여 고려의 부흥을 계획한것 같다. 李興茂의 供辭에 1392年 太祖元年 9월에 南平君 王和를 義昌 貶所에서 만났는데 南平君이 먼저 공양왕을 다시 王으로 옹립하는 일의 興否를 점치게 하고 다시 自身의 命運을 占치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이이의 命運이 君臣이 慶合하고 天地가 德合하는 운세이므로 47.8세에는 好運이오 50세 이후에는 將帥가 되어 軍士를 거느리게 되고 반드시 大人이 될 운세라하고 곁에 앉은 잘 모르는 僧에게는 王師가 될 운명이라 했다. 王和의 공초에는 去年 壬申年 9월에 義昌 貶所로 부터 장차 巨濟에 들어갈때 三寸 叔 僧 釋能과 더불어 李興茂에게 점을 물으니 말하기를 이 사람의 命運이 가장 좋다. 入島 三年 뒤에는 반드시 나을것이며 47.8세시에는 兵을 거느릴 것이며 장차는 一人의 운수가 될 것이라 했다. 釋能의 공초에는 나와 王瑠와 王和等이 義昌貶所에서 李興茂에 점을 물으니 王和의 운명을 入島 3年 뒤에는 나오게 될 것이며 47.8세 때에는 兵을 거느리고 임금이 될 운명이라 했다.⁴⁵⁾ 뿐만 아니라 定陽君이 사람을 益川君에 보내어 말하기를 섬에 들어가는것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왕을 다시 復立 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하더라는 것을 王和가 공초하고 있다.⁴⁶⁾

그리하여 1394年 太祖 3年 正月에 이들이 一網打盡되어 巡軍獄에 갇히게 되고 金可行은 체포되어 서울에 압송되었다. 그러나 李成桂의 判官으로 朴葢는 복직되고 金可行은 杖刑後 流配되었다. 그러나 臺諫 刑曹에서 反逆을 엄히 다스리라는 비발같은 상소

45)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卷 5, 太祖 3年 甲戌 2月條.

46) 太祖實錄 卷 5, 太祖 3年 3月條.

로 인하여 2月 6日 巡軍獄에 갇히게 되고 對質문초를 받았다. 이때의 訊問官은 散騎常侍 李居易 司憲中丞 朴信 刑曹正郎 田時 巡軍知事 成溥등이다. 이 때 王族 가운데는 智略이 卓邁한 王康과 膂力이 超衆한 王承寶 王承貴등이 있었고 恭讓王 父子들이 건재했다. 그 때문에 麗朝의 忠臣들에 의한 고려왕조 復興 運動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金可行의 壯舉는 이 운동의 一環이다. 이 金可行의 企圖에는 參贊門下府事 朴歲 知申事 李詹·金由義·塩場官·朴仲質·卜師·李興茂등이 관계되고 있다. 朴仲質의 供革에 의하면 杆城君元子の 命運이 좋다는 卜辭占封을 金可行·朴仲質 共히 은밀히 소지하고 있었으며 公陽왕의 元子를 추대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治罪에 있어서 朴威는 太祖의 옛 戰友란 情誼에서 刑曹 臺諫의 빗발치는 독촉에도 살려주었고 나머지는 處刑을 太祖는 命했다. 고려 忠臣 金可行은 꽃다운 나이 청년으로 太祖 3年 3月 壬子에 王和·王瑀·朴仲質·金由義·李興茂등과 함께 誅殺되었다. 王은 王瑀와 朴歲는 특사를 내리고 僧釋은 巨濟島에 安置 시켰다. 그리고 癸丑에는 恭讓君 三父子를 三陟에 移置시켰다가 다음달 4月에는 王命으로 王瑀 3父子는 先祖의 祭祀를 받들기 때문에 特赦하고는⁴⁷⁾ 共外의 王氏는 全滅시켰다. 中樞院副使 鄭南晉 刑曹議郎 咸傳霖을 三陟에 파견하여 公陽왕과 두아들을 絞殺하고 刑曹典書 尹邦慶 大將軍 吳蒙乙을 江華島에 보내어 移置시켰던 王氏들을 江華渡에 던져 넣어 물살시키고 刑曹典書 孫興宗 僉節制使 沈孝生을 巨濟島에 파견하여 여기에 수용했던 王氏들을 바다에 던져 물살시켰다.⁴⁸⁾ 이 前古未聞의 大慘劇은 金可行의 逆謀(고려 부흥운동)의 결과였다.⁴⁹⁾

金 子 粹

一名 自粹 字는 純仲 號는 桑村 本貫은 慶州 고려 공민왕 23년 1374년에 文科에 壯元及第했다. 德寧府注簿를 出발로 관계에 나아갔다. 性이 매우 강직했다. 禡王時에는 正에 이르렀다. 때에 慶尚道都巡問使 曹敏修가 密城에 침략한 倭寇를 격퇴하여 數 10 급을 斬하는 전공을 올려 포상으로 우왕이 衣酒와 말을 하사하니 曹敏修가 上箋하여 謝恩疏를 올리니 국왕이 回教를 지으라고 命했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조민수는 一道의 兵을 통솔하여 전일에 金海 大邱의 戰에서 怯懦하여 敗績이 많아 士卒를 많이 죽였으니 지금 密城의 小捷이 있다 하더라도 그 功이 아직도 그 죄를 갚는데 不足하며 衣酒鹿馬로 상이 이미 과한데 또 무슨 回教가 필요하며 또 回教는 功績을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 조민수는 其功을 기록할 만한것이 없어 敢히 命을 받들지 못하겠다고 국왕의 命을 거부했다. 우왕이 대노하여 金子수를 巡衛府에 내려 池潯과 大司憲 河允源으로 하

47) 『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卷 5, 太祖 3年 甲戌 4月 傳旨曰 王氏區處 一依各司實封 以王瑀三父子奉祀先祖寢之.

48) 上揭書.

49) 『太祖實錄』, 『陶隱集』, 金宗澤:『麗末節臣判書公 金可行先生遺事』, 李瑄根撰:『麗朝忠臣 金先生 神道碑文』, 權寧徹:『贊麗朝忠臣 金先生遺事文』 참조.

금 鞠問케했다. 池滄 등은 이를 違旨의 罪에 두고저 했다. 子粹가 말하기를 「先王 諫官을 두는 것은 임금의 잘못을 바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옛부터 王의 말이 不可함이 있으면 諫官 이를 諍한다. 願컨데 諸公 國家 諫官을 두는 뜻을 살피시오」 함에 池滄이 크게 怒하여 杖流할러하여 都堂에 議論케했다. 모든 宰相들이 지윤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다만 密直副使 李實林의 건의에 의하여 都堂은 이를 流配에 그치기로 청했다. 그러나 禍王이 듣지 않았다. 三司右使 金續命이 들어가서 太后에 아뢰어 드디어 太后의 말에 의하여 杖을免하고 全羅道 突山 戍에 유배되었다. 뒤에 典杖副令을 拜하고 判司宰寺事에 올랐다.

恭讓王의 朝에 成均館大司成 世子左補德을 除授했다. 때에 天文의 異變이 일어나 直言을 求함에 子粹 上書해서 奉佛의 잘못을 말하고 演福寺塔重修의 工役을 그만두고 民力을 덜게 하기를 청했다. 成均生員(大學生) 朴礎 등이 上疏해서 이를 極論하여 王의 崇佛을 통박하니 王이 大怒하였다. 처음에 司藝 柳伯淳이 성균관 대학생들에 효유해서 上疏치 못하게 했다. 그러나 朴礎 등 15인은 이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柳伯淳은 다시 知申事 成石谿에 말해서 그 상소를 만류하게 했다. 朴礎 등은 이를 알고 스트라이크를 할려했다. 國立大 총장인 大司成 金子粹는 그들의 無禮를 보고 크게 노하였다. 그러나 博士(국립대 교수) 金貂와 金祖 등은 朴礎 등을 비호했다. 그들은 生員(大學生) 徐復禮가 疏에 署名치 않는다고 격하여 복을 쳐서 서복례를 징계하여 퇴학시켰다. 이에 김자수는 金貂 등이 長官에 告하지 않고 生員을 퇴교시킨것에 크게 怒하여 김초의 家奴를 잡아 가두고 서복례를 불려서 복학시켰다. 김자수가 학교에 출근하니 김초 등이 이를 마당에서 맞이하지 않았다. 이에 김자수는 下官에 모욕당한 것을 부끄러워 하여 上箋하여 사직코저 했으나 上이 윤허치 않았다.

그는 性理學者로 성균관 대사성에 재직시는 崇儒排佛정책에 공헌하고 성리학을 펴는데 공헌했다. 그의 文教에의 공로는 당대에도 찬양 받았다. 얼마 안가서 그는 典校寺判事가 되고 左常侍로 진직하고 刑曹判書에 이르렀다. 고려가 亡하자 은퇴하여 安東에 은거했다. 母친 상을 당하자 廬墓 3年을 살아 朝廷에서 孝子 旌閭되었다. 조선 開國하야 太祖가 옛 親分에서 公을 大司憲의 관직으로 불렀으나 守節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太宗이 다시 刑曹判書도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公은 고려에 충절을 지키기 위하여 비장한 각오로 家廟에 永訣 통곡하고 그 아들에게 葬具를 가지고 뒤 따르라 명하여 바로 그날로 길을 떠나 廣州 명지 秋嶺에 이르러 그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 땅은 바로 내가 죽을 곳이다. 비록 여자로서도 오히려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남의 신하가 되어 두 姓의 임금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너는 반드시 秋嶺의 근방에 나를 매장하되 절대로 비를 세우지 말고 초목과 함께 썩게 하라고 하고는 그는 絕命詞 두 귀절을 지어 읊으니

平生忠孝志 今日有誰知

타하고는 독약을 마시고 自決하고 말았다. 秋嶺은 고려충신 정몽주를 장사한 곳이라고 하는 記事가 燃藜室記述의 記事다. 연려실기술에는 東國輿地勝覽에 金子粹가 後仕本朝했다는 기사를 신랄하게 지적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실고 있다.

愚川 鄭弼의 桑村事蹟碑에 「輿地勝覽의 金觀察의 이름 아래 仕本朝 세 글자 쓰여 있다. 輿地勝覽을 지은 것이 先隲 즉 世祖 때의 일이었으므로 국초로 부터 시대가 그다지 멀지 아니하여 집관찰이 自決하여 죽던 일은 비록 隱微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에 반드시 그 사실을 들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지승람에 다만 본조에 벼슬했다고만 기록한 것은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태조가 처음 나라를 세우던 날부터 따르던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세조가 단종으로 부터 왕위를 물려 받던 때 그말에 협찬하던 사람들이 재주있고 뛰어난지 아니한 인물이 없었다. 홍문관 예문관에서 붓을 잡은 이와 文廟에 摠載한 이들이 모두 세조의 거사에 협력하던 무리들이 아니면 곧 태조에게 붙었던 이들의 자손들이다. 비록 정치 경세에 편승하여 功名을 세웠으나 그들도 명분과 의리가 귀중한 것임을 돌이켜 생각한다면 또한 어찌 스스로 양심에 가책이 없었겠는가. 그들이 전시대의 절의있는 선비에게 대하여서도 오히려 자신은 그보다 못한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을 것인데 하물며 같은 시대의 절의있는 선비로서(김자수) 이름이 숨겨진 분에게 대하여 어찌 幽光을 발양시키고 潛德을 드러내려고 하겠는가(죽은것을 사실로 쓰는것) 그러므로 이씨 조정에서 벼슬하였다고 仕本朝 석자도 거짓으로 꾸며쓴 것이다.⁵⁰⁾

라는 記事를 실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손인 경주 김씨의 족보를 인용하고 있다. 이 김자수의 守節不仕의 기록은 朝鮮人名辭書, 韓國人名大辭典, 典故大方 嶺南人物考 등에 모두 한결 같다. 소위 杜門洞七二賢錄이나 騎牛子文集등에도 한결같이 守節하여 自決했고 不仕했다고 적혀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모두 大閔族인 경주 김씨의 기록에 바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金自粹는 太宗元年正月 27日 丁亥에 左散騎常侍에 任命되고 있으며⁵¹⁾ 太宗 6年 7月 13日庚午에 忠淸道都觀察使에 除授했다.⁵²⁾ 太宗 7年 正月 5日 庚申에는 忠淸道觀察使 金自粹가 煙戶米法을 罷하자고 請했다.⁵³⁾ 太宗 11年 9月 20日戊寅에는 金子粹를 判江陵大都護府事에 임명했다. 그는 1413년 太宗 13年 11月 14日 庚寅에 卒했다.⁵⁴⁾

이와 같은 엄연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공은 고려가 망하고 난후 守節하다가 조선왕조의 간곡한 부름을 받고 出仕한 것 같다. 따라서 燃藜室記述에 밝힌 공에 관한 東國輿地勝覽·慶州條와 安東人物條에 나오는 金子粹에 관한 두 기사는 잘못이 없다고 보겠다.⁵⁵⁾ 그러나 桑林先生은 偉대한 고려의 忠臣임에 틀림 없다. 朝鮮革命期에 발휘

50) 『慶州金氏族譜』, 『燃藜室記述』卷1, 太祖朝故事本末, 金自粹條.

51) 『朝鮮王朝實錄』, 太宗實錄卷 1, 太宗元年正月丁亥條.

52) 『太宗實錄』卷 12, 太宗 6年 閏 7月 庚午條.

53) 『太宗實錄』卷 13, 太宗 7年 正月庚申條.

54) 『太宗實錄』卷 26, 太宗 13年 11月 庚寅 條에 前判江陵大都護府事 金自粹卒.

55)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21慶州府 人物條에 金子粹 字純仲恭愍王末擢魁科...恭讓朝除成均大司成

한 그의 忠節은 偉大한 것이었고 朝鮮이 완전히 開國 安定되자 십년이 지난후 出仕한 點은 고려의 충절과는 상치되지 않는다고 하겠다.⁵⁶⁾

趙 狷

初名은 嵐 字는 巨卿 號는 松山 本貫은 平壤, 門下侍中 趙仁規의 曾孫 領議政府事趙浚의 동생 어린 나이에 出家하여 여러 절의 住持를 역임하고 30세가 넘어서 還俗하여 文科에 及第하여 고려 말에 按廉使에 이르렀다. 그는 兄 趙浚과 함께 高麗 王室派를 숙청하고 고려를 翦滅하여 李成桂를 추대하여 조선 혁명을 수행하는데 偉功을 세워 上將軍 趙狷을 純忠奮義佐命開國功臣 2等 9員 가운데 한사람으로 錄되고 平壤君으로 봉해졌다.⁵⁷⁾ 定宗 때는 右僕射에 오르고 太宗 3年 8月 20日 乙丑에 左軍都摠制平城君으로서 同 8月 28日 進賀使가 되어 明나라에 다녀오고⁵⁸⁾ 太宗 5년에는 開城留後가 되고 太宗 7年 3月 3日 丁巳에는 忠淸道都節制 兼水軍都節制使가 되었다. 太宗 15年 10月 18日 壬午에는 工曹判書가 되어 正朝使로 明나라에 다녀오고⁵⁹⁾ 世宗 3年 3月 23日 乙酉에는 几杖을 下賜 받고⁶⁰⁾ 平城府院君에 進封되었다.

그러나 조전은 어찌된 셈인지 偉大한 고려의 충신으로 추앙되었다. 그는 소위 杜門洞72賢으로 錄되었고 東國名臣錄과 燃藜室記述 平壤志 平壤趙氏族譜등에 모두 高麗의 守節臣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 異說 趙狷을 소개해 보겠다. 조전이 고려조의 宰相으로 고려의 운수가 장차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淸涼山에 은거하니 형 조준이 조전에 화가 미칠까 염려하여 開國功臣의 名簿에 이름을 기록했다. 그러나 조전은 이를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 이후 이름을 고쳐 狷이라 하고 字를 從犬이라 했다. 狷字는 논어에 狷者有所不爲라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그 뜻은 하지 않는 바가 있다는 뜻이요 字는 나라가 망했는데 죽지 못했음은 개와 같고 개는 그 주인을 연모한다는 뜻에서 取한 것이다. 朝鮮 開國 후에 태조 이성계가 친히 淸涼산에 찾아와서 公을 만나 벼슬을 내렸는데도 끝내 받지 않았다. 조전은 형 조준이 李成桂와에 가담하여 조선 혁명에 참여 할 뜻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집은 대대로 벼슬한 가문으로서 마땅히 고려와 존망을 같이 해야 한다고 하니 조준이 아우의 뜻을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 조전으로 하여금 언이어 嶺南按察使를 시키니 조전이 詩를 지어

三年再過嶺南樓 細細梅香勸少留
舉酒消憂堪送老 平生此外求不須

累官至刑曹判書後仕本朝.

同卷之 24 安東大都護府人物條에 金子粹 母歿廬墓三年 事閔旋閭 擢魁科官至都觀察使.

56) 『高麗史』卷 120, 列傳卷第 33, 金子粹傳, 『嶺南人物考』卷 1, 安東條.

『燃藜室記述』卷之 1, 太祖朝故事本末 高麗守節諸臣附, 『騎牛子集』卷2, 附錄.

57) 『朝鮮王朝實錄』太祖實錄卷 1, 太祖元年 9月 乙巳條.

58) 『太宗實錄』卷 6, 太宗 3年 8月 癸酉條에 遣左軍都摠制趙狷如京師 賀追崇高皇帝高皇后也.

라 하였다. 임기가 차기 전에 고려가 망하니 공은 통곡하고 頭流山에 들어갔다. 태조가 戶曹典書의 벼슬로 불러 글을 보내었더니 조건은 松山의 고사리 캐기를 원할뿐 聖人の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했다. 그후 두류산에서 淸溪山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松都를 바라 보고 통곡하였다. 그래서 세상에 이봉우리를 望京峰이라 했다. 太祖가 공의 節介를 가상히 여겨 손님과 주인의 예로써 만나자고 함에 공이 나와서 太祖를 알현했는데 손을 올려 음만하고 절을 하지 아니 하였으며 할말을 기탄없이 했다. 太祖가 이와 같은 高麗 忠臣의 無禮를 관대히 용서하고 돌아갈 때 御命으로 淸溪의 一區를 對하여 주고 마음 편하게 살게 했다. 또 돌집을 지어 주었더니 공은 끝내 御賜 집에 거처하지 아니하고 楊州 松山으로 옮겨 들어가서 은둔하여 살면서 호를 松山이라 했다 한다.⁶¹⁾

이와 같은 從前의 기록과 傳承을 볼때 한심함을 금치 못하겠다.⁶²⁾

卓 光 茂

字는 謙夫 號는 景濂亭 光山人 공민왕 14년에 左司議大夫에 올랐다. 고려말에 李穀·李穡·李種學·李仁復·文益漸과 善交한 才德兼備의 儒士로 不事二君의 節義를 지켜 李朝에 벼슬하지 않았다.⁶³⁾

文 益 漸

字 日新 號 三憂堂 思隱 本貫 江城(元 南平), 初名은 益磨 1360년 공민왕 9년 文科에 及第 金海府司錄 諄諭博士등을 지내고 1363년 左正言으로 書壯官이되어 計稟使 李公遂를 따라 元나라에 갔다. 元都에서 留附德興君하여 귀국후 파직되었다. 그러나 木綿 종자를 갖고와 장인 致仕典客寺令 鄭天益에 주어 재배에 성공했다. 그의 族黨에 의하여 木綿의 利用을 연구 개발하여 東國 綿業 진흥에 士大夫로서 공헌한 이채를 띠었다. 1375년 禡王 원년에 典儀注簿로 다시 등용되어 1389년 창왕 원년에 左司議大夫가 되었으며 공양왕 때 李成桂 一派에 의하여 추진된 田制改革에 反對했다. 이에 趙浚의 탄핵을 받아 高麗 王室派로 미움을 받아 숙청되었다. 이후 號를 三憂堂이라 하니 王國의 不振과 吾道의 不傳과 己道의 不修 셋을 근심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고향인 丹城集賢山 밑에 은둔하여 後生을 教育했다. 그는 出天의 孝子로 朝廷에서 孝子旌閭되었다. 性理學者로서 麗末 性理學의 泰斗였으며 高麗가 亡하자 北向 통곡하고 이후 杜門不出하고 李朝에서 여러번 불렀으나 守節하고 끝내 나아가지 않고 高麗 遺臣으로

59) 『太宗實錄』卷 30, 太宗 15年 10月 壬午條.

60) 『世宗實錄』卷 11, 世宗 3年 3月 乙酉條.

61) 李肯翹: 『燃藜室記述』卷之 1, 太祖朝故事本末 高麗守節諸臣附條.

62) 『燃藜室記述』『平壤志』『崧陽耆舊傳』『朝鮮王朝實錄』.

63)

살아났으며 太祖 7年에 別世했다. 비로소 그의 아들 文中庸이 太宗의 부름을 받고 처음 李朝를 섬기게 되었다. 諡 忠宣이다.⁶⁴⁾

金 澍

字는 澤夫 號는 籠巖 本貫은 善山 忠介公 金濟의 아우다.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하고 공양왕 4년에 벼슬이 禮儀判書에 이르렀다. 공양왕 4년에 公이 明나라에 賀節使로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압록강을 건너려 할 때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王位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동쪽을 향하여 통곡하고 편지를 써서 종에게 주어 부인에게 보내어訣別하기를 忠臣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법이니 내가 강을 건너 돌아간들 내 몸을 용납할 곳이 없을 것이오 내가 알기에 부인이 胎中이니 만일 남자를 낳거든 이름을 揚燧라 하고 딸을 낳거든 이름을 命德이라 하라. 여기 내가 입던 朝服과 신던 목화를 信標로 보내는 것이니 뒷날에 부인이 죽거든 이것을 같이 숨겨둘것이다. 그리고 墓誌와 墓碣을 쓰지 말아 후세 사람들이 내가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 글을 부치는 날을 내가 죽는 날로하여 나는 도로 明나라로 들어 갈 것이니 즉 12월 22일을 忌日로 삼아라 하고는 明나라로 回程하여 朝廷으로 들어가니 太祖皇帝가 本國에서 무슨 벼슬을 했느냐고 묻고 그에게 本國禮儀判書에 해당하는 禮部尚書를 除授 했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으니 황제가 尚書의 祿俸을 주어 살게 했다. 公이 荊楚에 살아 세 딸을 낳아 그 자손들이 많이 벼슬에 올랐다. 萬曆丁酉年에 明나라에서 使臣沈惟敬을 보내어 日本關白을 冊封할 때 冊封使節 중에 許惟誠이란 사람이 있어 東萊에 왔을 때 公의 후에라 하였다. 그가 新谷의 金氏(김주의 후손)를 만나고자 했으나 사람들이 金氏의 本貫 善山만 알지 新谷이 公이 살던 동리 이름인지 알지 못하여 연락이 되지 못했다 한다.

公의 아들에 遺腹子인 揚燧가 있어 뒤에 이름을 揚普로 고치고 벼슬이 宣慰使에 이르렀다.

公이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詩를 지어

臨樹蒼蒼塞日昏 白山雲雪照離蹲
君行莫恨天涯別 我是歸人亦斷魂

이라했다. 公의 遺墟가 善山邑 북쪽에 있다. 正祖 戊午年에 임금이 친히 祭文을 지어 承旨를 보내어 賜祭했다. 그 글에 이르기를

嶠山 남쪽과 洛水 동쪽에 산은 半月이 있고 물은 長虹이 있도다. 그곳에 들이 있어 크고 높으니 이는 누구의 형상이며 집이 있어 넓고 밝으니 이는 누구의 살던 곳인가. 이는 金尚

64) 『高麗史』 110, 列傳卷第 23, 文益漸傳, 『太祖實錄』·『太宗實錄』·『三愛堂實紀』·『騎牛集』·『新增東國輿地勝覽』, 李昇圭: 文益漸(朝鮮名人傳), 金成俊: 文益漸(韓國의 人間像 第3卷).

書가 이곳에 살았도다. 나는 周나라 곡식이 없는데 그때는 殷나라 伯夷 叔齊 처럼 노하니 어찌 하오. 玉帛을 잡고 저 金陵에 갔는데 돌아와 압록강에 이르니 마침 조정이 淸明하여졌구나 壇에 장막이 있는데 남은 건너나 나는 건너지 않도다. 어찌 능히 온다고 이르리오. 어지러운 그 갯물이 한번 가고 돌아오지 않으니 百越이 藁藁하도다. 황제가 말하기를 슬프다. 그때는 오직 충신이 도다 나의 三禮를 말으라하나 그 옛것을 고치지 않았도다. 흰칼날로 가히 밧을 양으로 걸하고 머리를 조아렸도다. 庖人과 廩人이 계속하여 문에 있었도다. 海在에서 서로 전하는 것이 대개 이 말과 같도다. 伯兄도 또한 뛰어나서 역시 바다에 뗏구나 어진것을 구하는 風度여 이러므로 귀우치지 않도다. 내 일찌기 여기에 감동된바 있어 이에 太常을 명하도다. 宣諭하여 전하려고 招魂을 부르노라.

고했다. 麗末 鮮初의 忠節에 公의 兄弟 만한 忠節의 집안도 드물것이다.⁶⁵⁾

李 行

字는 周道 號는 騎牛子 白巖 一可道人 本貫은 驪興 諡號는 文節 牧使 李天白의 아들 1371년 공민왕 20년 文科에 及第하여 翰林修撰을 거쳐 우왕 시에 典醫副正에 올라 耽羅島에 가서 자주 일어나는 반란을 鎮撫케 하니 星主 高臣傑의 아들 高鳳禮를 볼모로 데리고 開京에 와서 入朝케 함으로써 탐라도의 亂을 견제했다. 1389년 창왕 원년에는 左司議大夫로 올라 田制改革의 필요성을 상소했다. 이어 知申事가 되어 1390년 공양왕 2년에 葬初의 獄事에 연루되어 李穡 李崇仁등 고려 왕실과와 함께 淸州獄에 갇혔으나 水災로 인하여 석방되었다. 그후 經筵參贊官 藝文館大提學을 역임하고 1392년 吏曹判書에 除授되어 判典客寺事 趙英珪가 門下侍中 鄭夢周를 暗殺함에 李行은 국왕께 상서하여 趙英珪를 萬世凶人 이라고 彈劾했다. 미구에 고려가 亡하자 靑牛을 타고 禮泉洞으로 돌아가 은거했다. 太祖元년에 朝鮮開國功臣 39人을 策하고 遣使하여 李行에 教論文을 撰進케 命했으나 病을 칭하여 사양하고 짓지않았다. 太祖 2년에는 趙英珪의 탄핵으로 李穡 정몽주에 李成桂를 誣書한 禍王弑逆의 直書史筆의 죄로 平海에 杖流되었고 家産을 籍沒당했다.⁶⁶⁾ 여기서 公은 매양 月初에 騎牛하여 越松亭에 가서 노닐고 白岩山下에 살면서 逍遙忘世하고 詩酒로 自娛했다. 이듬해 풀려 나왔다. 太宗이 潛邸時의 舊誼로 불렀고 여러 차례 벼슬로 불렀으나 高麗 忠臣으로 守節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1405년 태종 5년 5월 13日 丁未에 藝文館大提學을 除授했고 同 16日 庚戌에 啓稟使로 明나라에 使行했다.⁶⁷⁾ 사신을 다녀와서 同 7月 3日에 判承寧府事 5年 10月 22日에 判漢城府事를 역임하고 1407年 太宗 7年 8月 3日甲申에 刑曹判書

65) 『嶺南人物考』卷之一, 安東條, 『燦黎室記述』卷之 1, 太祖朝故事本末 高麗守節諸臣附條.

66) 『太祖實錄』卷 3, 太祖 2年 正月 戊午條에 司憲府上言 前藝文春秋館學士李行嘗爲恭讓知申事 職兼史官修撰 乃阿李穡鄭夢周 誣書我主上殿下 殺辛禰辛昌及邊安烈 請收職諫 鞠問論罪 上允之 先是侍中趙浚坐春秋館 見前朝史草 至行所記有曰 尹紹宗忌李崇仁才 告於趙浚 欲害崇仁 浚指日誓之曰 所聽紹宗之言 欲害崇仁者 有如白日 進告上 上命進戊辰已後史草 遂親見行所記 以誅安烈及禰昌父子等事 皆指斥 上以爲無罪彼殺……禰昌父子百官合辭請誅 恭讓允之 予初無欲害之心云云. 同 3月丙寅條.

67) 『太宗實錄』卷 9, 太宗 5年 乙酉 5月庚戌條.

에 임명되고 太宗 12年 8月 1日 癸丑에 藝文館大提學 太宗 13年 4月 7日 乙卯에 完山府尹을 除授했으며 1415年 太宗 15年 12月 7日 庚午에 開城留後司留後를 除授했다. 그는 1432年 세종 14년에 享年 81세로 별세했다.

그러나 李敦禹가 撰한 行狀에 의하면 太祖 御命의 開國公臣 39人의 撰進教諭文을 謝病不製하고 杜門洞 諸賢과 함께 朝天冠을 걸고 蔽陽을 쓰고 不朝謁에 올라 통곡하고는 「西望首陽忍食周粟」이라 하고는 세상에 자취를 감추고 숨어 살면서 元天錫 吉再 成石璘 成石珮과 往來酬唱하면서 守節하고는 太宗大王이 潛邸舊諠로 屢召不起라 했다 하며 아들 遜이 또한 自靖코자함에 先生이 「新王赤聖人也爾與我異須善事」하러 했다 한다. 마치 吉再와 방불하다. 새임금님도 또한 聖人이니 너는 나와 다르다.(고려의 신하가 아니니) 모름지기 잘 섬길지어라고 했다 한다. 그래 公은 守節타가 아들 代에와서 비로소 李朝에 벼슬하여 長男 遜이 直提學 次男 迹은 大司憲 庶子 蒙與는 兵曹判書에 올랐다 한다. 嶺南人物考 安炳周 教授의 高麗名賢集 騎牛集 解題 朝鮮人名辭書에는 守節不仕라 했다. 그리고 九貞忠錄과 杜門洞 72 賢錄에 올려 있다.

公의 高麗를 위한 忠節은 偉大한바 있다. 그는 13年 間을 守節하고 新王朝가 완전히 기틀을 잡은 후 太宗 5년에 비로소 出仕했다. 그 점에서 그의 忠臣의 면목은 더욱 빛난다. 이상더 高麗遺臣으로 節義를 지킬 필요성이 없었다. 三韓 人民이 모두 새나라 조선의 백성이 되는데 누구를 위해 수절할까보나 여기에 그의 經綸과 人生觀 國家觀이 있다.⁶⁸⁾

元 天 錫

자는 子正 號는 耘谷 原州人 문장이 뛰어나고 學問이 해박했다. 고려말에 세태가 어지러움을 보고 雉岳山 밑에 은거 하면서 이름을 감추고 몸소 농사지어 어버이를 봉양하다가 이름이 軍籍에 등재된것을 보고는 할 수 없이 科擧를 보러가서 단번에 進士에 及第하였다. 그러나 벼슬은 하지 않고 고향에 은거하여 牧隱 李穡과 더불어 서로 왕래하면서 자주 시를 지어 酬唱하면서 時局이 돌아가는 것을 개탄했다. 高麗가 亡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통곡하고 세상에 자취를 감추고 수절했다. 太宗이 微時에 그에게서 受學했다. 그래서 옛 師傅를 존경하여 太宗이 즉위하자 여러번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太宗이 王 17年 原州 覺林寺에 行幸하셨다가⁶⁹⁾ 元公의 집을 찾아 갔더니 公은 피하고 보이지 않았다. 太宗이 溪石 위에 내려와서 그 집 女婢를 불러 음식을 하사하고 돌아와서 그 아들 洞에게 벼슬을 주어 基川(豐基) 監務에 임명했다. 뒷날에 그 돌을 이름하여 太宗臺라 하였다. 그 臺는 雉岳山 覺林寺 곁에 있다.

68) 『騎牛集』·『太祖實錄』·『太宗實錄』·『嶺南人物考』, 密陽篇, 『高麗史』 참조.

69) 『太宗實錄』卷 33, 太宗 17年 2月 甲申條에 王이 原州 覺林寺에 睿龍을 講讀시키고 幸行하셨다. 여기서 9월까지 住御하셨다. 皇考妣 冥福을 위해 華嚴經을 만들어 施納했다. (現 寧越郡水周面講林里所在)

그 후에 太宗이 上王이 되었을 때 특명으로 公을 소환하니 公이 흰옷으로 입고와서 알현했다. 흰옷은 상복으로 망한 고려를 조상함이다. 宮中에 불러 들어 옛 師弟之 情의를 말한 다음 여러 왕자들을 불러내어 인사시켰다. 그러나 그는 끝내 조선에 仕宦을 거부했다. 公이 麗末의 革命之際에 歪曲된 歷史를 直筆한 野史 6卷을 지어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굳게 채워두었다가 운명할 때 유언하여 말하길 내 자손이 만일 나와갈지 않으면 열어보지 말라고 엄중히 훈계했다. 그 가문에서는 아들 손자 대에 이르기까지 그 자물쇠를 채워둔채 열지 않았다. 증손 대에 와서 명절 제사를 지낼 때 宗族이 모두 모여 서로 의논하여 비록 先祖의 유언이 있었지만 세월이 오래 되었으니 열어 보아도 편찮을듯 하여 궁금하기 때문에 열어 보았더니 麗末 李成桂파에 의한 廢假立眞 찬탈하기까지의 기사를 적어 놓았는데 역사 사실대로 直書하여 꺼리낌이 없어 현실의 고려말 역사와는 많이 달랐다.

가장 다르게 直筆한 부분이 廢假立眞에 관한 李成桂一派의 음모와 홀계 그리고 무자비한 단행을 春秋筆法으로 바르게 기록해 놓아 조선의 어용 관찬기록과는 아주 달랐다. 이것을 보고 자손들은 大驚失色하여 滅門之禍를 초래할 史書로서 일단 개봉 열람한 이상 소문날 것을 저어, 드디어 이 秘錄을 불태워 버렸다. 실로 애석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현존하는 先生의 유고 두권 중에서 당시 사적을 후세에서 잘 알 수 없는 사실을 直筆한 것은 辛旽의 子라고 조선의 혁명파에서 우긴 禍王이 恭愍王의 親子라고 한 것은 매우 귀중한 기록이요 直筆中の 直筆이다. 장황하나 그의 丹忠 高節을 헤아리기 위하여 公의 忠君憂國의 詩를 소개하면서 검토 해 보겠다.

伏聞主上殿下遷于江華元子即位有感 즉 주상전하(禍王)이 江華도로 안치되고 원자인 창왕이 즉위했다는 뉴스를 듣고 느낌이 있어 시를 지으니

聖賢相遇遇當時	天運循環自此知
田畝豈無憂國意	更彈忠懇念安危
新主臨朝舊主遷	蕭條海郡但風烟
天關正路誰開閉	要見明明鑒在前

성현이 서로 만나 교제되시니
천운이 돌고돌음을 이로써 알겠네
맡가는 몸인들 어찌 우국의 마음 없으리
다시 간절한 충성을 다 바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도다.

새 임금 즉위 하시고
앞 임금 옮겨 가시니
소조한 강화도엔 바람 연기 뿐일세
하늘의 바른길을 뉘라서 열고 막으리

하늘의 밝은 거울 밝고 밝게
앞에 보이세.

都統使崔瑩被刑 도도통사(총사령관) 최영 장군이 이성계에 의하여 斬誅되었다는
시는

水鏡埋光柱石頽 四方民俗盡悲哀
赫然功業終歸朽 確爾忠誠死不灰
紀事青編曾滿帙 可憐黃壤已成堆
想應杳杳重泉下 掛眼東門憤未開

거울이 빛을 묻고 나라의 기둥과 주춧돌이 무너지니
사망의 백성들 모두 슬퍼하여라
빛나는 공업이 마침내 색어버렸어도
확고한 충성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으리
靑史에 기록된 공훈 일찌기 절에 찾았거니
아! 흩이되어 벌써 싸였구나.
생각하던 아득한 황천 아래
등문에 눈을 걸어주어 이성계가 망하는 꼴을 본데도 분함은 그치지 않으리.

獨立朝端無敢干 直將忠義試諸難
爲從六道黔黎望 能致三韓社稷安
同列英雄顏更厚 未亡邪佞骨猶寒
更逢亂日誰爲計 可笑時人用事奸

홀로 조정 머리에 섰을 때 뉘 감히 범했으리
곧은 장군께선 충의로서 온갖 국난 겪었도다.
육도(고려 나라) 인민의 희망을 좇아
능히 三韓의 사직을 편안케 했어라
同列의 영웅들 이성계와 얼굴도 두텁구나
사악하고 아첨하는 자들은 亡하기 전에 오히려 뼈가 싸늘해 지리라
다시 난리를 만나는날에 그 누구가 막아 주리
가소롭구나 음모를 꾸미는 간악한 인간들아

我今聞訃作哀詩 不爲公悲爲國悲
天運誰能知否泰 邦基未了定安危
銛鋒已折嗟可及 忠膽常孤恨未支
獨對山河歌此曲 白雲流水摠噫噫

내 지금 부고 듣고 슬픈 시를 짓나니
公을 위한 슬픔은 아니라 나라 위한 슬픔일세
天運의 비(否)와 태(泰)의 괴를 그 누구가 알겠소
나라 터전의安危는 아직도 정하지 못했도다
날카로운 창칼 끝이 부러지니 슬퍼한들 무슨 소용있으랴.

朝鮮初期 節義派의 研究

충성스런 그대 항시 의로이 나라를 지탱하지 못한것을 한했도다
울로 피와 가람을 대하여 이 노래를 노래 부르나니
흰 구름 흐르는 물이 모두가 슬프고나

以聞今月十五日國家已以定昌君立王位 前王父子以爲辛屯子孫廢爲庶人爲題
이달 보름에 국가가 이미 정창군으로 王位에 오르게하고 前王 父子는 辛屯의 자손이라고
하여 폐하여 庶人으로 만들었다는 제목의 시에

前王父子各分離 萬里東西天一涯
可使一身爲庶類 寸心千古不遷移

前王 父子가 각각 서로 여의어
하늘 끝 등서에 멀리도 멀어졌네
한 몸이사 폐하여 서민을 만들 수 있지만
마음은 영원히 변치 못하리라.

祖王信誓應于天 餘澤流傳數百年
分揀假眞何不早 彼蒼之鑑昭昭然

태조 임금의 맹세에 하늘이 응하사
내려오는 恩澤이 흘러흘러 수백년을 전해 내려 왔거니
우왕 창왕의 피가 진짜냐 가짜냐를 왜 일찍이 가려내지 못했는가
저 푸른 하늘의 거울은 밝고 밝기만 한데도

그는 나라에서 前王 父子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제목의 시에

位高鍾鼎是君恩 半月含羞已滅門
一國豈能留景祚 九原難可雪幽冤
古風淪喪時還泰 新清法平道益尊
且向王塚呼萬歲 願施優渥及山村

높은 벼슬에 올라 나라 다스리며 祿을 받은것은 임금님 은혜인데
반달 동안 수모를 당하더니 이제는 滅門을 당했고너
은 나라가 어찌 능히 복을 받겠는고
九原에 맺힌 원한을 씻을 길 없어라
옛 공숙을 잃어버렸는데 때는 도리어 편안하고
새 법이 밝고 공평함에 道는 더욱 높으리다
궁궐을 향하여 만세를 부르노니
원컨대 후한 은혜 산촌에 까지 미치소서

先生은 고려 왕실의 기둥이던 韓山君(李穡)이 長湍에 귀양가다는 제목의 시에

天寶韶光政令苛 有誰如琢復如磨
邇來夢謁連三夜 記取魂遊作一歌

邦國經綸歸火澤 江河舟楫困風波
天如未喪斯文也 縱有逆人奈我何

하늘이넌 보배(李穡)는 빛을 감추고
政令은 가혹하기만 하니
넌라서 구슬을 탁마하겠는노
요사이 사흘 밤을 연이어 그대 꿈에 뵈오니
꿈에 영혼이 서로 만나 놀든 것을 회상하며 이 노래를 짓노라
나라의 경운은 불바다에 잠기고
가람에 배들은 풍파에 시달리는 도다
하늘이 斯文(유교)를 없애지 않는한
逆賊인들 우리를 어찌 하겠는고

玉自無瑕事已訖 荆人兩別定非他
海東風月應含憤 天下英雄所共嗟
萬姓同瞻新日月 三韓自國舊山河
明知枉直蒼蒼在 寤寐祈傾體氣和

옥은 스스로 티가 없는데도 일은 이미 그릇되었나니
옛날 楚나라 荊山에서璞옥을 깬 卞和가 두번이나 발을 베허인것은 다름이 아니었네
海東의 風月도 응당 의분을 품고
천하의 영웅들 함께 탄식하네
만 백성이 함께 새 천지를 보았는데
삼한은 예대로 산천은 변함없네
그르고 울음을 밝게해줄 하늘이 있나니
자나 깨나 그대 몸 편안하심을 기도드리네.

라는 公의 詩를 검토할 때 句句 節節에 스며든 위대한 忠節 愛國과 끓어오르는 정의의 의분의 웨침에 가슴을 셀레게 한다. 朝鮮 初期에 守節한 高麗의 遺臣 중에서 나는 이 元天錫을 第一의 忠臣으로 推舉하는데 인색치 않는다. 餘他的 守節臣과 달리 그는 朝鮮革命의 主役들을 逆賊이라 罵倒하고 고려왕실을 부들고 나라를 구제한 絶世의 영웅 최영을 비통하게 찬미하고 고려 왕실을 부지하던 柱石之臣 文豪 李穡의 流配에 통분하며 廢假立眞을 맹렬히 비난하여 禍王을 공민왕의 자손이라한 元天錫의 不屈의 정의와 충절은 그 詩 가위 董狐筆이요 그 노래 가위 文天祥의 正氣歌요 그 守節 가위 伯夷 叔齊에 겨누리라.

象村 申欽은 公의 詩를 直筆로 기뻐함이 없음을 찬양하여 鄭麟趾의 高麗史에 비하던 日星과 蟬蛻를 비교하는 차이가 있다 했다.⁷⁰⁾ 寒岡 鄭述가 江原觀察使가 되어 公의 墓에 祭祀하여 그 祭文에

70) 申欽：象村雜錄。

산에 고사리가 있으니 가히 굶주림이 없을 것이요 집에 거문고와 책이 있으니 가히 스스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예물로 은근히 불러도 處士里는 안온하였네. 천고에 빈 산중에 한줄기 맑은 바람이로다.

라 했다.⁷¹⁾

徐 甄

初名은 敎 號는 麗窩 본관은 利川 文科에 급제하여 1391년 공양왕 3년에 司憲府 掌令이 되어 大司憲 姜淮伯·金震陽등과 함께 趙浚·鄭道傳을 탄핵하여 조정에서 몰아냈다. 그러나 제빨리 이성계파의 반격을 받아 정몽주가 살해되자 김진양의 당이라 하여 諫官 金震陽등과 함께 杖流되었다. 조선 개국 후에 방면되어 清白吏에 錄選되었으나 衿川에 은둔하여 조선조에 벼슬하지 않았다. 공이 衿川에 유배되어 있을 때 시를 지어

千載神都隔渺茫 忠良濟濟佐明王
統三爲一功安在 却恨前朝業不長

천년 신성한 서울 개경은 아득한데
충신과 良吏들이 많이 나와 임금을 도왔도다
삼한을 통일한 공은 지금 어대 있는고
도리어 前朝의 왕업이 길지 않았는것이 한스럽구나.

그는 配所에서 고려왕국이 亡한 것을 들었다. 그래서 충신의 애끓이는 고려에의 애국시를 지었던 것이다. 太宗 12년에 大臣과 臺諫들이 그를 잡아다가 죄를 다스리고자 상소하니 태종이 노하시어 말하기를 「고려의 신하가 그 임금을 잊지 않고, 시를 지어 사모하니 이것은 경리가 그러할 것이다. 우리 李氏인들 어찌 천지와 더불어 영원하겠는가, 만일 우리 이씨의 신하에 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가히 칭찬할 일이다. 그만두고 묻지 말라」하였다. 뒤에 다시 죄 줄것을 여러번 청하였으나 太宗은 「서건은 고려의 신하인데 우리 집을 섬기지 아니하고 저의 임금을 추모하니 이것은 伯夷 叔齊 같은 사람이다. 가이 칭찬할만한 일ियो 죄줄 수는 없는 것이다」고 했다.

뒤에 윤근수가 선조께 아뢰어 그의 무덤을 충신의 무덤으로 봉했다. 그의 무덤은 衿川邑에서 10리 되는 燐塘에 있다. 선조 조에 修撰 許黻이 經筵에서 아뢰어 표창하고 장려할 것을 청하니 선조가 그 묘에 제사지낼것을 명하고 大司諫을 증직했다. 고려의 망국을 읊은 시조가 전해지고 있다. 始興의 忠賢書院에 제향했다.⁷²⁾

71) 『燃藜記述』 卷之一 太祖朝故事本

末 高麗守節諸臣附條, 『朝鮮金石總覽』·『耘谷詩史』

72) 『燃藜室記述』 卷之一, 太祖朝故事本末 高麗守節諸臣附條.

禹玄寶

字는 原功 본관은 丹陽, 赤城君 吉生의 아들이다. 1355年 공민왕 4년에 文科에 급제하여 春秋館檢閱 執義 左司議大夫를 역임하고 禡王조에 密直 代言 右文館提學 同知 密直司事兼大司憲이 되고 政堂文學 門下贊成事 三司左使에 올랐다. 1388年 우왕 16년에는 다시 門下贊成事に 拜하여 純忠翊戴佐理功臣의 號를 하사받았다. 1388年 우왕 16년에 遼東征代을 단행할 때는 首都를 守備한 重責을 띤 京城留守로 임명되었다. 그는 최영과 우왕의 신임이 두터웠다. 이성계가 쿠데타를 단행하여 위화도회군시에는 非常內閣의 門下左侍중에 大拜되어 李成桂·曹敏修의 叛軍을 討伐하는 책임이 지워졌으나 叛軍의 勝利로 인하여 李成桂에 의하여 左侍中에서 삭탈관직되었다. 昌王 2년에 金佺의 獄事가 일어나 公이 驪興에 가서 폐왕 禡王을 만나 비밀히 정몽주와 더불어 난을 일으킬 것을 모의했다 하여 李成桂派에 의하여 탄핵받아 파직당했다. 뒤에는 丹陽府院君에 封해지고 1390년 공양왕 2년에는 判三司事に 除授되어 소위 舜初의 獄事に 연루되어 고려 王室派의 大肅清에 걸려 遠地流配되었으며 일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鐵原에 유배되었다. 그의 名望으로 인하여 석방되어 丹山府院君에 改封되었다. 1392년 공양왕 4년 都評議使司에 의하여 마지막 고려 王室派의 대숙청에 걸려 정몽주의 피살 후 慶州에 遠配되었다가 풀려 났으며 조선이 개국되자 光州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었다. 李成桂의 革命 수행 과정에 있어서 舊 權門世族의 巨木으로 田制改革에 反對하고 李穡·鄭夢周와 손잡고 고려왕실을 扶支하려다 이성계파에 의하여 혹독한 박해와 遠配의 연속인 고초를 당했다.

조선 개국후 守節타가 1398年(태조 7년)에 復官되었다. 太祖는 옛 친구의 예로서 公에게 厚賜하고 公신의 爵號를 주었으나 사양했다. 고향에 돌아가기를 간청하므로 태조 8年 丹陽伯에 特進 시켰다. 1400년 定宗 2年 제 2차 王子의 亂시는 門人 芳幹의 인척인 判校書監事 李來로 부터 芳幹 반란계획의 소식을 듣고 이를 그의 門人인 李芳遠에 아들 禹洪富를 보내어 알려주어 그 공에 의하여 推忠輔祚功臣이 되었다. 시호는 忠靖을 하사 받았다. 公은 麗末 고려 정계의 巨木으로 고려 왕실을 중흥 시킬려고 노력하고 조선 혁명을 반대한 忠臣이며, 특히 그의 아들들도 그의 아비와 같이 고려의 빛난 忠臣으로 고려를 위하여 殉節한 빛난 忠臣의 家門으로 當代에 獨邁하던 名門이었다.⁷³⁾

禹洪康

禹玄寶의 아들 禡王時 文科에 급제하여 右正言, 江原道按廉使 親禦衛大護軍등을 역임했으며 1392년 朝鮮이 開國되자 李穡등과 함께 고려를 부흥시키려는 忠臣들과 함께

73) 『高麗史 115, 列傳卷第 28, 禹玄寶傳』·『燃藜室記述』·『太祖實錄』·『定宗實錄』.

削奪官職되어 遠地에 杖流되었다. 그후 太祖 7년에 방면되어 복직되어 李朝에 벼슬하여 漢城府尹, 江原道觀察使를 거쳐 1421年 世宗 3년에 開城留後司留後에 이르렀다.⁷⁴⁾

禹 洪 富

禹玄寶의 아들, 공양왕 때 典醫副令을 거쳐 諫言이 되어 고려 충신들과 고려를 부흥시킬려고 진력다가父子 함께 流配되었다. 太祖 7년에 방면되어 復官되고 太宗時 開城留後司副留後가 되었다.⁷⁵⁾

曹 信 忠

本貫 昌寧이다. 夏城府院君 左政丞 曹益淸의 子다. 李崇仁·河崙·李穡과 善交하고 麗末에 永川으로 내려와 은거하여 세상에 나가지 않고 수절했다. 河崙이 太祖 등극후 5년에 江界道兵馬使兼判熙川郡事로 불렸으나 벼슬을 사양했다. 공이 아들 曹尚治에 이르기를 「나는 前朝의 宰相의 아들로서 科擧에 올라 祿을 먹었으니 마땅히 수절하여 陶淵明의 節義를 지킬것이나 너는 나라가 바뀐 뒤에 났으므로 스스로 숨어 살 義理가 없으니 힘쓰라」하여 曹尚治가 庭試에 나아가 壯元及第하였다. 太宗이 曹尚治를 보고 「네가 王氏의 臣下 曹信忠의 아들이냐」고 묻고 正言에 임명하니 士大夫가 영광스럽게 여겼다.⁷⁶⁾

宋 倫

字는 怡叔 號는 雙淸堂 本貫은 恩津·官이 司僕寺正에 이르렀다. 고려가 亡하자 회덕에 내려가 조선의 祿을 먹지 않고 숨어 살았다.⁷⁷⁾

許 棹

號 擎庵 고려 進士로 조선 개국후 세상에 숨어 수절했다.⁷⁸⁾

許 錦

字 在中 號는 堊堂 本貫 陽川 고려에서 文科에 급제하여 官이 典理判書에 이르렀다. 고려가 망하자 숨어 守節義했다.⁷⁹⁾

朴 愈

本貫 蔚山 官이 翰林學者 南平 監務로 있었다. 고려가 亡하자 벼슬을 버리고 任存

74) 『高麗史』·『太祖實錄』·『太宗實錄』·『世宗實錄』.

75) 『高麗史』·『定宗實錄』·『太宗實錄』.

76) 『燃藜室記述』卷一, 太祖朝故事本末 高麗守節諸臣附條.

77) 上揭書.

78) 上揭書.

79) 上揭書.

에 내려가 숨어 살았고 兩代에 벼슬하지 않았다.⁸⁰⁾

尹 忠 輔

본관 茂松 安城郡守로 있다가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驪江으로 내려가 숨어 살았다.⁸¹⁾

李 種 德

號 三堂 李穡의 아들 文科에 壯元及第하고 禡王 때 同知密直司事를 지냈고 正朝使로 明나라에 다녀왔다. 그는 아버지 牧隱과 함께 고려 왕실을 扶持하려고 盡忠報國하가 말로 형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⁸²⁾

李 種 善

字 慶夫 李穡의 아들 15세에 文科에 及第한 秀才로서 有名하다. 言官으로 1392年 공양왕 4년 鄭夢周 일당으로 몰려 廢庶人이되어 杖流되었다. 그는 아버지 이색과 함께 李成桂파에 의하여 말못할 迫害를 받았다. 고려를 中興시키려고 丹忠을 고려에 바쳤다.

조선 개국후 풀려 나와서는 李朝의 간곡한 부름을 받아 新王朝에 벼슬살게 되었다. 그는 이미 신왕조가 개창되어 고려는 영원히 옛날로 돌아갔고 또 家門의 전통을 살리기 위하여 그는 신왕조에 협조했다. 名門 牧隱의 아들이란 우대 속에 1409年 태종 9년에는 左右司諫 戶曹參議 代言을 역임했으나 그의 아버지 목은의 碑銘에 不穩한 文字가 있다하여 東萊에 유배되었다가 1412년 復官되어서는 忠淸道都觀察使 1419년 세종 원년에 漢城判尹 仁壽府尹을 역임. 1412년 左軍都總制가 되고 1425년엔 謝恩副使로 明나라에 다녀온 뒤에는 嘉禮色都監提調가 되어 전라도로 世子嬪을 뽑으러갔다. 1429년에는 開城留後司留後를 除授하고 1438년에는 中樞院使에 이르렀다. 시호는 良景이다.⁸³⁾

許 崱

號는 迂軒 본관은 金海 충숙왕조에 文科에 及第 하여 獻納이되고 1331년 충혜왕 원년에 密直提學 韓宗愈 右代言 李君佺가 科試를 맡아보며 監察大夫 崔安道の 아들 崔景을 不正及第시키자 正言 趙廉·鄭天湍등과 함께 이를 탄핵하여 科擧의 재 실시를 상소했다. 1336년 충숙왕 복위 5년 監察掌令에서 사퇴하고 1339년 忠肅王復位 8年 郎舍로서 앞서 不正及第한 崔景의 牒狀에 署名을 거부하여 忠肅王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뒤에 官이 典理判書藝文館提學에 이르고 清廉剛直했다. 麗末에 政亂을 보고 致仕後

80) 上揭書.

81) 上揭書.

82) 『高麗史』.

83) 『高麗史』·『太祖實錄』·『太宗實錄』·『世宗實錄』.

고향 丹城에 돌아가 漁釣로 自娛하가 朝鮮開國後 累徵不起하고 杜門終老했다.⁸⁴⁾

都 膺

初名은 俞 字는 子藝 號는 靑松堂 本貫은 星州다. 麗末에 官이 門下贊成事에 이르렀다. 李成桂의 어릴적 친구였다. 己巳禍變之後로는 丘園에 晦跡하야 絶意當世했다. 조선 개국하자 太祖가 옛 우정을 생각하여 上將軍에 임명하고 京倉米 700斛을 下賜하니 公은 모두 사양하고 받지않았다. 洪州의 老隱洞에 은거하야 다섯번이나 李朝가 불렀으나 모두 사양하고 응하지 않았다. 이에 王이 史官으로 하여금 찾아가서 傳言케했다. 즉 前朝의 慘禍는 나도 慙憐히 여기는 바이나 서로 돕는것이 이치이니 어찌 故人の 情의(情誼)가 없겠는가 하매 公은 家門이 여러 代를 前朝를 섬겼으므로 비록 赤族의 禍를 입었으나 都膺도 또한 前朝의 祿을 먹었으니 어찌 한 몸으로 두 임금을 섬기겠나. 富貴를 누려 마음에 부끄럽기 보다 차라리 부끄럽없이 비천하게 죽는것이 낫다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했다. 太祖가 公의 節義를 가상히 여겨 靑松堂이란 額號를 내렸다. 그리고 翰林 沈綦를 시켜 詩를 내리니

愛靑松節 貞幹手以摩
寒岡千仞上 霜雪不曾磨

푸른 소나무의 節介를 사랑하여
손으로 곧은 줄기 어루 만지노라
추운 천길 산위에 섰지만
서리와 눈에도 깎이지 않았구나.

라고 했다. 公의 節義를 千仞 寒岡上的 靑松에 비유했다. 公에 임금의 뜻을 傳함이 四通이요 또 임금의 命이 二通이었으니 公의 節義를 숭상했다.⁸⁵⁾

范 世 東

字는 汝明이요 號는 休崖 錦城人, 공민왕조에 德寧府尹 諫議大夫에 이르렀다. 性理學을 연구하여 교육했다. 고려의 국운이 장차 기우는 것을 보고 萬壽山 밑에 물러가 은거했다. 고려가 亡하매 不朝覲에 올라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伯夷가 어떤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고 했다. 東方淵源錄을 지어 禡昌王이 王氏 이라는 說을 極히 論辨했다.⁸⁶⁾

徐 仲 輔

號는 積岩이요 長城이다. 어려서 부터 高節이 있고 學問을 좋아했다. 고려가 亡하자 새 王朝 李朝를 섬기기 싫어 하야 北面치 않았고 杜門洞에 들어가 숨어 나오지

84) 『高麗史』·『新增東國輿地勝覽』. 丹城縣條.

85) 『嶺南人物考』卷之 7, 星州篇.

86) 『朝鮮古今名賢傳』, 朝鮮弘文社出版.

않았다. 李朝가 奉正大夫로 부르니 공이 말하길 나라가 亡하고 임금이 죽었는데 내가 장차 어테로 갈고 하고는 드디어 분신 자살했다.⁸⁷⁾

元 庠

本貫 原州, 政堂文學 元松壽의 子, 軍器寺少君으로 在職다가 1389년 공양왕 원년에 金佇의 獄事에 관련되어 光州에 流配되었다가 1391년 國大妃의 生日을 맞아 特赦로 풀려 나온 후 長湍의 大德山下에 은거했다. 그는 고려의 王室派로 節義를 지키다가 李成桂派에 의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다. 朝鮮 開國이 되자 공의 德望을 인정하여 조선 조정의 부름을 누차 받았으나 공은 나아가지 않고 고려를 위하여 守節했다. 그러다가 1413년 太宗 13년에 檢校參贊議政府事를 거쳐 1435년 세종 17년 判中樞院事에 除授되고 익년에 几杖을 하사 받았다.

공은 고려의 遺臣으로 守節한것은 忠臣으로 높이 평가 해야 할 것이며, 조선이 개국되어 빛나는 國基를 다져 약진하는 세시대에 참여 한다는것은 또한 고루하지 않는 시대에 부응하는 감각이라 할만하다.⁸⁸⁾

鄭 熙

號는 默隱 본관은 河東 鄭夢周의 門人 1376년 우왕 2년에 文科에 급제하여 直提學司憲執義에 임명되고 1392년 공양왕 4년에 鄭道傳 南閣 趙浚을 탄핵하다가 流配되어 고향에 安置되었다가 太宗初에 석방되었다.⁸⁹⁾

全 五 倫

號는 採薇軒, 1391년 공양왕 3년에 左散騎常侍 刑曹判書를 역임 1392년 고려가 망하자 杜門洞에 들어갔다. 조선 太祖시에 本鄕에 安置되었다가 후에 석방되어 瑞雲山에 隱居했다.⁹⁰⁾

Ⅶ. 杜 門 洞 72 賢

朝鮮 開國元년에 高麗가 亡하자 고려의 忠臣들이 亡國을 통곡하고 松都 南峴(지금의 不朝峴)에 朝天冠을 걸어 두고 각기 샷갓을 쓰고 李朝를 섬기지 않고 節義를 지켜 世上을 등지고 떠났었다. 이를 世에 杜門洞 72人이라 칭한다. 혹은 조선의 太祖가 科擧를 보임에 고려의 太學生들이 이를 보이코트하고 杜門洞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傳說에 가깝다고 하겠다. 확실히 고려가 亡하자 고려의 遺臣들이 세상을 하직하고 깊은 산골에 은거하면서 杜門不出하고 一生을 李朝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고

87) 上揭書.

88) 上揭書.

89) 『高麗史』·『太祖實錄』·『騎牛集』.

90) 上揭書, 『採薇軒實記』.

不仕하여 節義를 지키 세 상을 마친 一群의 高麗遺臣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드는 世稱 杜門洞 72人이 다 과연 守節臣이었고 그 외는 없었던가에 는 疑心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겠다. 처음은 杜門洞 守節臣에 曹義生 林先味 孟某 란 3人의 太學生 이름만 전했으나 그 후대에 72인의 이름이 만들어졌다. 또한 寶鳳山 北 10里許에 杜門洞이란 것이 또 하나 있었다 한다. 麗臣 48人인 이 골에 들어가서 守節한 洗身井 會盟臺가 있으며, 聖居山下에 名 判寺洞이 있으니 麗臣 8人이 먼저 妻 子를 죽이고 이 洞에 들어와 나무를 쌓아 焚死했다 한다. 그러나 두곳의 守節臣의 이 름은 傳하지않고 있다. 後世에 造作된 杜門洞七十二賢에 關하여는 二種의 資料가 있 다.⁹¹⁾ 여기서는 이 異種의 資料를 모두 소개하여 보겠다.

杜門洞 72人

禹 玄 寶	丹陽人號義浩堂志曰去國季札終身可効入中國
曹 義 生	昌寧人號遠村志曰甘心杜門死而後已入杜門洞
林 先 味	平澤人號休庵惟當從其義皆入杜門洞
高 天 祥	志曰惟當從其義皆入杜門洞
田 貴 生	號耕隱 志曰入於深山耕者誰知逃入絕島
李 崇 仁	號陶隱 字子安 志曰陶河之世嗟已遠矣杖流遠地
李 孟 藝	志曰願酒清於雷首隱於鰲川
柳 洵	志曰磻溪直鉤釣周何意隱於五鳳山
田 祖 生	號耕隱 志曰欲爲耕者何山可往遯于頭流山排祿洞
趙 承 肅	號德谷志曰伯夷之餓亦何意歸于德谷
蔡 貴 河	志曰東瞻開城非我土西望首陽忍忘一心隱於多義峴
徐 輔	志曰願不北面愧二心者遯于積岩
邊 肅	志曰楊朱誰家其操可恭
朴 謹	志曰願尋高麗山
申 晏	號黃衣翁志曰新王非我王忍作二王臣歸黃衣山
朴 寧	志曰橫島安在欲往茫然
金 冲 漢	號樹隱志曰願從伯夷 採薇西山遯于頭流山
高 天 祐	志曰願歸田里遯于頭流山
徐 仲 輔	志曰國破君亡余將焉歸 入杜門洞
趙 安 卿	志曰時已非矣 不去何求
李 穡	號牧隱 見放韓山
李 裕	隱於鰲川

91) 『中京志』卷 7古蹟 杜門洞.

許	錦	字存中典理寺判書入杜門洞
李	守仁	流遠地
鄭	熙	流遠地
吉	再	號治隱先去金烏山
元	天錫	號耘谷隱於雉岳
金	澍	號籠岩入中國
崔	漢	號晚六堂入中臺山鄭夢周甥
趙	狷	先隱於松山
全	五倫	隱於瑞雲山
趙	洪	遯于栗原山
金	自粹	號桑村隱於秋嶺
李	思敬	歸肅薪里
李	遂生	隱於栗里
金	若時	號陰村隱金光里
南	乙珍	號沙川入紺岳
李	行	隱醴泉洞
李	淪	遯桃灘
李	養中	號石灘左參議遯廣陵
徐	甄	號麗窩掌令歸衿川
林	卓	歸錦城
金	六庇	歸古石山
邊	貴壽	入頭流山排祿洞
安	從約	上同
金	俊	上同
尹	陸	上同
朴	忱	上同
裴	尚志	號柏竹 上同
具	鴻	上同 志曰伯夷何人我何人
李	唯仁	上同
朴	門壽	上同
李	釋之	永川人 號南谷 歸龍仁
成	思齊	入杜門洞
閔	普	上同
林	鷹	上同
車	元頰	上同
崔	文漢	江陵人 號忠齋 忠肅王駙馬歸江陵
申	釋	武兵部中郎入杜門洞
申	自嶽	釋弟歸寧海
金	璋	入頭流山
閔	安富	上同
申	德隣	上同
申	包翹	上同
朴	宜中	號貞齋 歸於農

李 陽 昭 琴 隱歸於墓庭
 朴 太 始 號松溪 歸於故庄
 李 瓊 號二憂堂 入杜頭洞
 孟 好 性 號龍號 上同
 吉 仁 迪 上同
 申 彝 號慎歸齋 版圖判書 上同
 潘 失名 上同

出華海師全⁹²⁾

杜門洞七十二賢錄

鄭夢周 字達可 號圃隱 延日人 趙英珪 椎殺于架資橋 青竹即生橋上 因號善竹橋
 金 澍 號龍岩 善山人 恭讓朝以禮判 奉使天朝 還到鳴綠江聞運訖 寄夫人書曰 忠臣不事
 二君 烈女不更二夫 仍送朝衣夫人 下世後以此合葬 且以發書日爲我忌日 遂入中
 原居浙江。
 李存吾 號石灘 慶州人 恭愍九年登第授監察糾正 見時事亂憂憤成疾卒 贈大司成立祠
 鄭 樞 清州人 見天命有歸 憤惋不平疽發背卒 諡文簡
 崔 漢 號昭六 會州人 受學於其舅鄭圃隱之門 文科大提學 我太祖龍興之日 握手曰 吾友
 崔漢來耶 賜田祿不受而終 享西山祠
 吉 再 字再父 號治隱 善山人 種竹 御賜田手把黃花祭伯夷 以注書知國將亡 棄官歸隱金
 烏山。
 南乙孫 宜寧人 沙川伯
 林先味
 元天錫 號耘谷
 曹義生
 孟 裕 溫陽人 文尚書與其子同隱
 都 膺 初名俞 字子芸 官佐平 贊成事 見天命有歸杜門屏迹 太宗賜號青松堂 賜詩曰愛看
 青松節 貞幹手以摩 寒岡千仞上 霜雪不曾磨
 李思之 號麗隱亭 京山今碧珍人 官至郎將父希慶爲麗朝元帥征阿只拔都還爲零賊所害人皆
 曰死於國事忠也 公在革命之初 杜門屏跡而 謂其子曰吾志已定 爾則學優登仕於本
 朝宜也
 陶東明 號雙檣 以文學孝友著于世 爲南臺掌令 見天命有歸 入杜門洞屢徵不起 詳載名義錄
 金自粹 字純仲 號桑村 慶州人 官大司成 以忠清觀察使見時事亂 退居安東母喪廬墓三年
 事聞旋聞
 張安世 玉山人 官德寧府尹 不仕本朝隱居 遂志詩曰
 元氣雙分上古前 興亡物色尚森然 還鄉事遠丁千歲 治水功餘禹八年
 黃菊炯爛兼白酒 蒼髯偃蹇挹高巔 宦遊只欲扶王化 可用區區富貴全
 程 廣 號巾川 麗朝官侍事 知國禍棄官歸
 鞠 禱 太祖朝火其廬杜門不出 以遂立節不服之義 子孫因屬潭陽吏
 韓哲冲 號夢溪 官典書 麗亡不二臣節隱於杜門洞 終歸尚州白原山
 羅天瑞 字 定伯 見運訖 與其子闔門祗俟直卿及吉治隱同出處
 成 溥 官刑曹掾郎 麗亡避去 太祖以臺諫召不就 贈兵判
 李明成 公州人 官監察御史知製誥 國將亂 棄官歸伊川

92) 『典故大方』卷 4.

- 李 穡 字穎叔 號牧隱 韓山人 詩曰
長松之下石爲臺 西望蒼然大野開 指點首陽孤竹處 有誰能辨所由來
- 鄭 地 錦城人 海道元帥 力贊太祖威化回軍 不參開國勳 歸老故鄉 謚景烈立祠光州 並藏甲衣。
- 河自宗 號木翁 晉州人 官兵部尚書 麗末僞疾不起 終老鄉里 領相敬齋演之父
- 李養中 號石灘 廣州人 官刑判 國初遷居廣州 被竄不屈
- 金震陽 字子靜 號草屋子 雞林人 官左常侍與李穡等効流趙凌鄭道傳等杖流遠地尋卒
- 安 省 官直提學 太祖拜平壤伯不受 命錄清白一目差少 太祖命名
- 李思敬 號送月堂 全義人
- 趙忠肅 字敬夫 號德谷 咸安人 詩曰 豈無三月無君歎 只愧干名甚乞墻
- 許 徵 官縣令 國將亡以巡檢遷居吉州
- 崔文漢 忠肅王駙馬 知國將忘遷居江陵
- 徐 甄 利川人
- 申德隣 號醇隱 高靈人 官禮儀判書 麗亡退居光州
- 孟希德 官典教令 國亡退居東浦
- 金若恒 若時弟 官執義麗亡入皇朝不還 贈贊成光山君
- 裴尚志 官判司僕寺事 入皇朝與中書郎抗禮不屈 麗亡退居安東金溪村 種松栢以見志 號栢堂 興海人
- 李繹之 號南谷 永川人 官賁文提學 見國將亡 棄官歸居龍仁南谷
- 李 行 字周道 號騎牛子 謚文節 驪州人 官吏曹判書 大提學 麗亡屢徵不起 謫平海
- 邊 肅
- 金光致 洛城人 與兄土洛伯得培平紅巾及倭寇 麗亡退居尚州不仕
- 李種學 號 麟齋 韓山人 牧隱子
- 李陽昭 進士 與太祖同榜 退居漣州青華洞 太祖幸其家詩酒相樂 除谷山郡守 騎牛到官三日棄歸終老銀杏亭 上賜以葬山
- 閔 楡 府院君 見國運訖退居通津鳳翔里不仕
- 文益漸 號大庇齋 南平人 江城君 嘗使上國藏錦核筆管而來 見國運訖退居鄉里卒 立祠
- 林貴楸 羅州人 麗亡不仕
- 曹希直 官正言 與李存吾疏斥奸屯謫珍島 太祖龍興有勸仕 自比夷齊之節 終不出仕 作鳴鷗亭嘉興水邊以終
- 金士廉
- 金承吉
- 趙 瑜
- 金 濟 號白岩 善山人 平海郡守 龍岩兄 蹈海詩
呼船東問魯連津 五百年今一箇臣 可使孤魂能不死 願隨紅日照中垠
- 趙鐵山
- 范世東
- 具 鴻
- 尹忠輔
- 成思齊 昌寧人 官賁文提學 麗亡入杜門洞 名子曰社歸昌寧
- 金冲漢
- 柳 珣 號碧隱
- 朴門壽

閔安富
蔡王澤 領護軍 麗亡浮海而南隱居臨坡
宋 皎 官典書 屏居礪山
崔七夕 全州人 七月七日討馬島有大勳賜名
車原頌 號雲巖 延安人 官諫議大夫 太祖屢徵不起 不就勳業
金子進 光山人 官司評 麗亡退居羅州 以麗字名其田山亭井
趙 胤
金若時 若恒兄
鄭 溫
李 涓
宋 寅
郭 樞
蔡貴河 號多義堂 隱居多義村⁹³⁾

不朝峴言志錄

洪武二十五年壬申秋七月哉生魄 乙未即麗氏運訖 本朝受命之際也 忠臣烈士之徒 同有臣僕之志 自請其義之所當盡 於是焉 齊登松都市東南峴 掛朝天之冠 戴蔽陽之笠 南登不朝峴

朴門壽 曰天命有歸 國事已非 吾屬盍各言其志
成思齊 曰寧爲王氏鬼 不作李家臣
曹義生 曰甘心杜門 死而後已
林先味 曰惟當從者義
高天祥 曰惟當從者義
田貴生 曰深入於山耕者誰知
李崇仁 曰陶河之世嗟已遠矣
李孟藝 曰願颺清風於雷首
柳 珣 曰磻溪直鉤周何意也
田祖生 曰欲爲耕者何山可往
具 鴻 曰伯夷何人我何人
禹玄寶 曰去國季札終身可效
趙永肅 曰伯夷之餓亦我意
蔡貴河 曰東瞻開城非復我土 西望首陽忍忘一心
李 行 曰西望首陽忍食周粟
徐仲輔 曰願不北面於新朝愧二心之人
邊 肅 曰樓宋誰家子其操可慕
朴 謙 曰願尋高麗山
申 晏 曰新王非我王忍作二王臣
朴 寧 曰橫島安在欲往茫然
高天祐 曰願歸田里
趙安卿 曰時已非矣 不去何求 言訖 咸望松京曰夷齊何人 曾餓西山流涕 而皆曰可去矣 時
鄭夢周：殉國於善竹橋
李 穡：已見放韓山
吉 再：先去金烏山

93) 『騎牛集』卷 2, 附錄.

朴門壽：歸排祿洞，田貢生：逃入絕島

成思齊：退居於午正門外山谷間

李祐・李孟藝：隱東鰲川

趙狷・貝鴻・元賁：隱松山

曹義生・林先味・高天祥・徐仲輔：皆入杜門洞

李守生・鄭熙良・金震陽・李種學：並流遠地

崔 溼：隱貌山

柳 珣：隱五鳳山

元天錫：隱雉岳山

金 澍・禹玄賁：入中國

崔 濩：入中臺山

趙承肅：歸德谷

全五倫：入瑞雲山

趙 珙：遯栗原

金自粹：隱秋嶺

李思敬：隱肅薪里

李遂生：隱栗里

金若時：隱金光里

南乙琮：隱古沙川

蔡貴河：隱多義峴

朴 諶：隱立岩

趙安卿：隱泉山

邊 肅：隱鳴山

朴 寧：隱法峴

徐 暉：隱積岩

李 行：隱醴泉洞

申 晏：歸黃衣山

李 淪：歸桃灘

李養中：遯廣陵

徐 甄：遯襟陽

林 卓：歸錦城

金英庇：隱古石山

宋 柱：歸洪陽，高天祐・邊龜壽・安從約・金俊・尹珪・朴忱・許錦・裴尚志・李惟仁・閔

普・文咸・車・嚴・張・金冲漢・李・金煒・閔安富・田祖生之徒：歸排祿洞

而皆抗不二之節 取其而成其仁焉 當時士大夫皆高尚其道 希之者惟恐不及 更相標榜爲之稱號⁹⁴⁾

以上이 世稱 杜門洞 72人이다. 開城 表節祠에는 林先味 曹義臣이란 고려 太學生으로 杜門洞에 들어가 守節한 人士와 孟姓人이란 杜門洞人을 配享하고 있다. 杜門洞諸賢中 三人만을 祭享한다. 이는 正祖 7年에 建立한 것이다. 杜門洞이 世에 各광을 받게 된것은 英正祖時이었다. 鄭夢周의 善竹橋殉節說이 世上에 各광을 받게 된것도 亦같은 時期였다. 英祖는 王16年 松京에 幸行하서 不朝峴에 駐駕하여 親賦一句하시고 從臣에 聯廣을 命했다. 그리고는 開城留守 金若魯에 命하야 高麗忠臣不朝峴 七字를 刻여 碑를 세우게 했다. 英祖는 또 杜門洞碑表를 세우게 했다. 그래서 「勝國忠臣令焉在 特豎其洞表其節」이라 御製하시고

崇禎紀元後百二十四年辛未季秋追感杜門洞 前朝忠臣七十二人節 命錄用其孫 豎碑洞中 寔予 卽侑之二十七年也⁹⁵⁾

라 했다. 그리고 이해 10月 20日에 英祖는 開城留守 徐宗伋을 파견하여 杜門洞賜祭文을 내렸다. 杜門洞의 傳說을 이해하기 위해 賜祭文을 소개하겠다.

國王遣臣開城府留守徐宗伋 侑祭于杜門洞中高麗諸忠臣之靈 守節不二 臣道之常 顯忠褒烈 著在禮章 我朝受命 應天順人 聖化攸及 率普皆臣 爰有麗賢 七十有二 同臣同僕 自靖其志 有

94) 上揭書.

95) 上揭書, 『中京誌』 卷 7 杜門洞.

洞曰何 有門斯扁 閉而不出 晦迹匿形 其身雖廢 其節不沐 抱忠守貞 之死靡悔 後有不朝 前有掛冠 顧名雖殊 取義則班 予昔歷茲 顧詢遺址 躊躇興感 予懷曷已 事跡漸遠 文獻無徵 欲勒于後 其無褒稱 特書大書十四字 庸堅貞珉 庸表予意 想像遺烈 採訪後裔 相方視位 以壇以祭 牲酒調潔 黍稷惟香 百世何遠 永樹風聲

라고 했다. 英祖의 不朝峴聯句를 보면

勝國忠臣勉繼世	御製	分明鑑戒在興替	都承旨 閔亨洙
地因人重名猶傳	同副承旨 金尚魯	里隔山深跡自驚	左副承旨 韓師得
積累周開八百年	左承旨 趙明謙	狂昏秦失千萬計	左副承旨 朱教明
杜門洞邃餘風聲	記事官 李會元	善竹橋荒尚書噓	別兼春秋 金漢詰
豈但彝倫當日扶	兼春秋 權瑞東	須看懿節至今揭	聽注書 洪益三
愚忠只願爲良臣	修撰 尚迪	聖德宜思鑄成際	修撰 鄭彙良
七字銳珉還鞏道		猗歟褒綽詔來裔	校理 南泰齊

라하고 不朝峴碑陰記에

我聖上卽降之十六年秋九月戎變興調厚陵 歷幸松都訪故事 父老對曰 敬德宮之前麓卽不朝峴 昔我太祖大王既定鼎 御是宮試諸生 麗之臣庶不朝 走踰于峴 峴以是名 其詳有府誌在 上駐駕路次 顧瞻咨嗟曰有表乎 僉曰無 上曰此忠臣遺跡也 宜旌而褒 爾守臣刻高麟忠臣不朝峴七字于峴 臣若魯承命訖 伏以思之 惟我聖上遵先朝舊事 光臨故都 撫興亡之跡 而官王氏之裔 獎文忠之節 而碑善竹之橋 聞勝國之忠義 而又思所以永樹風聲 是誠歷代帝王之所未能有者 而我聖上有之 表懿烈 於千百載之上 扶世教於千百代之下 一舉而兩得之 於乎休哉 臣添守茲土 獲觀盛事 不勝欽誦 碑旣成 謹附小識 以詔於後 嘉善大夫 開城留守兼管理使臣 金若魯謹撰⁹⁶⁾

또한 麗末鮮初에 忠臣에 九貞忠錄이란 것이 있으니 적어 보면

九 貞 忠

全五倫：旌善人 官典法判書 麗亡隱旌善追伯夷之節 採薇於山 朔望具朝服 望松京痛哭
金自粹：字純仲 慶州人 號桑村 官大司成 見時政曰亂退居安東 母歿廬墓三年 事聞旌閭 太宗徵刑判 公歎曰吾平日以忠孝自勵 今若失身何面目見君父於地下乎 行至秋嶺作絕命詞 曰平生忠孝意 今日有誰知 一死吾休恨 九原應有知 因遂自盡
申 晏：平山人 官宗簿令 革命之後 本朝召之 公排祿歸東陽曰 豈忍以一身事二姓乎 遂居黃衣山下 名其洞曰排祿 畫陶潛採菊圖以自警 與蔡典書相從 世稱排祿節士
李 行：字周道 驪州人 官大提學 麗亡騎青牛 隱江陰醴泉洞 我太祖首訪 不出而終 謚文節 時人謂之騎牛子 有陽村近騎牛說
李思敬：全義人 官司宰監 見時事將亂 隱開城肅薪里 李牧隱作送月堂記以贈之
李遂生：字明仲 遂安人 號尊岩 與牧治遯于遂安栗里 拜吏議 不就 有許許敬庵贈詩
高天祐：天祥弟 官都總制 召拜開城留守辭以亡國舊臣 不起

96) 上揭書.

裴尚志：興海人 號栢堂 官判事 不仕我朝而卒

鄭熙良：河東人 號默隱 圖隱門人 官直提學 上疏極論鄭道傳南閭趙浚之罪 謫遠島 我太宗特命有 因不仕卒。

또한 圖隱善友錄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九精忠과 합致된다.

以上에 든것이 麗末鮮初 朝鮮初期에 까지 亡한 고려를 향한 충절을 간직하고 절의를 지킨 守節派의 人物들이었다. 위에서도 論한 바와 같이 이 가운데는 얼토 당토않는 人物도 있으며 이 보다 더 偉大한 節義臣이 많이 있었지만 世上에 이름이 묻힌 人物도 많다. 司馬遷이 史記 伯夷列傳에서 말한바,

伯夷叔齊雖賢 得夫子而名益彰 顏淵雖篤學 附驥尾而行益顯 岩穴之士趨舍有時 若此類名湮滅而不稱 悲夫 閭巷之人 欲砥行立名者 非附青雲之士 惡能施于後世哉

라는 말로 끝 맺고자 한다.

Ⅶ. 結 言

北方 軍閥 세력인 李成桂를 中心한 新進性理學者들에 의한 조선 혁명의 과정에서 二派로 갈라진 性理學派는 하나는 부패한 佛教를 배척하고 노쇠한 고려 왕조를 혁명하며 性理學의 新儒學을 指導理念으로 하는 新王朝를 창건하는데 투신했고 한파는 大義明分과 忠義를 고수하여 너머지는 王室을 扶持 中興시킬려고 獻身 분투하다가 종내 고려왕조가 멸망하자 신왕조에 충성과 仕宦을 거부하고 조선이 開國하자 江湖 山林에 숨어 고려를 위하여 守節하고 一心 性理學을 연구하고 여생을 後學을 교육하면서 高潔하게 보낸 節義派를 浮刻 정리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은 조선 혁명에 적극 참여하여 開國功臣에 錄勳된 조선 혁명파가 위대한 高麗 遺臣 節義派로 기록되어 儒林과 국민에 존경을 받던 人物이 있다는 事實과 처음에는 守節하다. 뒤에는 조선왕조에 仕官하여 祿을 먹고 고려에 충절을 變節한 人士가 非一非하다는 事實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後孫이 저술한 私家記錄이란 일마나 허구요 신빙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통감했다.

本稿에서 節義派를 다루는 가운데서 고려 멸망 전후에는 조선 혁명파에 대항하여 완강히 투쟁하고 조선 개국하자 守節을 하다가 이미 수년이 지나 百姓과 天下人心이 新王朝에 돌아가고 天命 또한 신왕조에 돌아가고 신왕조가 진실하게 國基를 반석위에 세우게 되자 이상의 守節은 고루와 완고 와 시대착오 외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여겨 신왕조의 召命에 사양하다 나아가 신왕조에 공헌한 人物은 그런데로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 높이 다루고자 노력했다.

본고에서는 節義派와 士林派의 淵源은 表裡一體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李穡·鄭夢周·李崇仁의 고려 忠節 三隱에 發源하며 이 三隱의 연원을 계승한 治隱 吉再와 그의 學統을 계승한 金叔滋 父子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史의배경을 밝혔으며 節義派의 面目を 당라하여 정리코자 시도했다.